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관설 미술공모전과 한국미술



2024.8.10^토

오후 2시 - 6시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 관설 미술공모전과 한국미술

2024. 8. 10. (토) 14:00 – 18:00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미술연구소

초판 발행

2024년 8월 10일

발행인

정병국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3층
artsarchive.arko.or.kr

기획총괄

정보원, 한국미술연구소

진행/편집

박수정, 신여주

글

문정희, 설문원, 오혜진, 이민수,
정수진, 최영민, 홍선표, 황빛나

디자인

수위크

도움주신 분

김예현, 김효숙, 노유경, 이한솔, 하승희

© 2024 아르코예술기록원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아르코예술기록원과 각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목 차

| 1부 |

2023년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 모델링 사업보고

사회 : 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장)

사업 경과보고	5
(정수진,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를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 세부 보고	19
(오혜진,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 2부 |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의 지속적 확장의 필요성

사회 : 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장)

한국 근대 관전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필요성	34
(홍선표, 한국미술연구소 이사장)	
1950, 60년대 한국미술의 현대화와 국제화	44
(문정희, 대만 국립타이난예술대학 부교수)	
대한민국미술전람회 DB구축과 활용을 통한 한국현대미술 재구성의 가능성	55
(이민수,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1935년 조선미술전람회, 텍스트로 가상하기 : 아카이브를 활용한 메타버스 전시 가능성	68
(황빛나, 아트시넵스 총괄디렉터)	

| 3부 |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의 기술적 방향

사회 : 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장)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79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에서의 전거제어 및 시소러스 구축 방안	90
(최영민, 부산현대미술관 기록연구사)	

| 1부 |

2023년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 모델링 사업보고

사회 : 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장)

사업 경과보고

정수진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

1. **사업명:** 2023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모델링 사업-조선미술 전람회(1922-1944)
2. **용역기간:** 2023.09.01 - 2023.12.31(3.5 개월)
3. **시행업체:** (주)아트시냅스
4. **사업의 목적**
 - 한국 근현대 미술제도 및 시각문화 연구를 위한 1차 사업 주제로 대한민국 관설 공모전의 전사(前史)인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관련 기록의 수집과 목록화
 - 입수 자료 간의 상호 맥락정보 추출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메타데이터 설계
 - 향후 데이터 관리와 활용, 연구자 수요에 부합되는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모델링의 제시
5. **사업 추진 내용**
 -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원천기록물의 조사 및 기록수집: 이미지 촬영, 스캔 등 디지털 변환 및 검수 포함
 - 메타데이터 설계
 - 도출된 메타데이터에 따른 기록 내용정리 및 목록화
 - 데이터 모델링의 제안: 개념적·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제시
6. **사업 실행 결과**
 - 1) 자료 모집과 목록화: 보도 매체, 도록/도판, 기타로 대분류. 각 항목의 자료를 조사, 수집, 가공 및 2차례의 검증을 통한 모집과 목록화
 - 보도 매체의 관련 기사 등 텍스트: 16,437건
 - 전람회 도록, 엽서, 유리건판, 우대권 등 이미지: 15,370건
 -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록의 건별 세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유기적 목록 작성
 - 2) 메타데이터 설정 및 데이터 모델링
 - The Prix Ars Electronica 등 국내외 기존 아카이브의 조사를 통한 모델링

- 전시, 인물, 작품, 자료의 테이블 구성
- 메타데이터는 구축 대상 기록의 특성, 국내외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아르고 예술기록원 소장 기록 정보와의 연계성, 기록간의 상호 맥락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메타데이터 구조로 설계
- 시뮬레이션 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 경과 보고 —

2023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모델링 사업: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2024.08.10

정수진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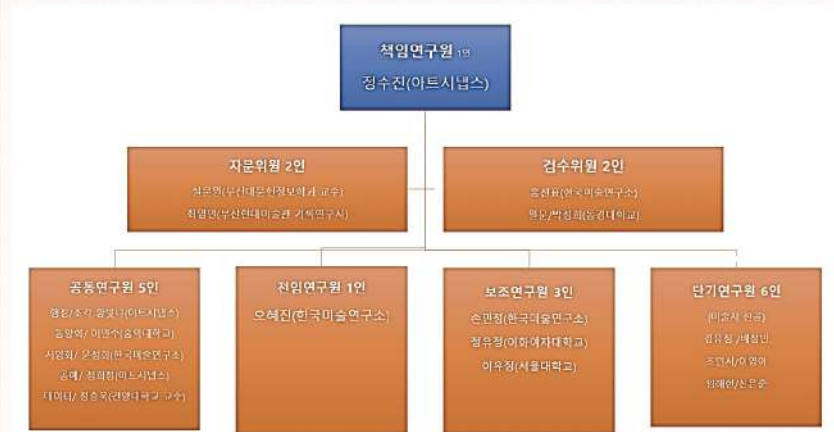
1. 사업명: 2023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모델링 사업
-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2. 용역기간: 2023.09.01 - 2023.12.31
3. 용역업체: ㈜아트시냅스
4. 참여인력: 10명(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5명, 전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3명)

◎ 사업의 목적

- 격변기였던 20세기 전반, 한국 미술 제도 형성의 근간을 제공한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록의 총체적 입수
- 기록 입수단계에서 건별 대상 자료의 특성에 기반하여, 기록 간 상호 맥락 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메타데이터 설계
- 도출된 메타데이터에 따른 원자료 정리 및 목록화
- 향후 데이터 관리와 활용, 연구자 서비스 수요에 부합되는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모델링의 제시

◎ 전문성 및 차별성

- 문헌정보학 및 데이터전문가와 미술사 분야 전문연구기관 소속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들을 확보하여 각 부문 자문 협조 시스템 실현
- 전람회의 장르를 반영하여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5개 부문 전문연구자 참여
- 수집, 입력, 교열/교정 부문을 담당한 보조연구원들의 책임담당제
- 단계별 작업 메뉴얼 작성
- 메뉴얼을 토대로 한 단기 및 보조연구원 1차 수집, 가공
- 전임연구원 2차 검수
- 부문별 공동연구원 3차 검수
- 연구책임자 및 자문위원 최종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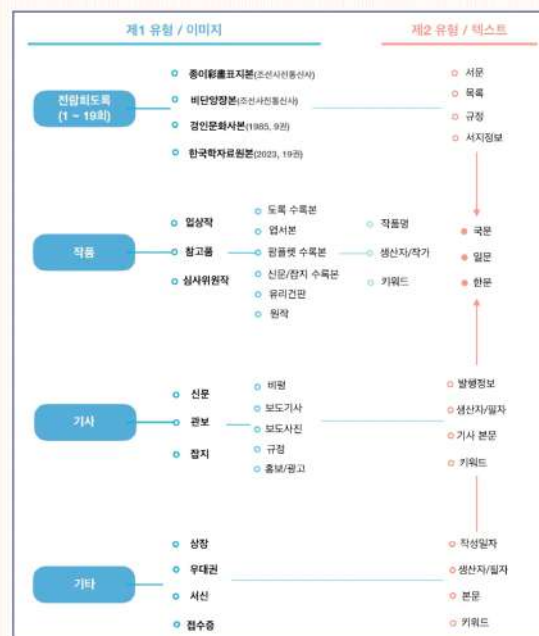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절차



*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원천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과 가공

- 산재된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록물의 현황 파악
- 기록물 소장처별 종합 조사 및 수집 대상 자료 목록화
- 수집 자료의 유형 및 특성 분석
- 신규 수집 기록물의 촬영 및 스캔을 통한 원천자료의 디지털 사본 확보 및 가공

유형	매체 상세	고문서류	시정각		기타
		고신문, 잡지, 관보 등	도록, 엽서	유리건판	
디지털 파일형태, 규격		jpg/tiff, 300dpi기준, 1MB이상 본문(텍스트), csv	jpg/tiff, 300dpi기준, 2MB이상	jpg/tiff, 300dpi기준, 2MB이상	jpg/tiff, 300dpi기준, 2MB이상



*** 메타데이터 설계 및 목록화**

- 구축 대상 기록물의 특성, 국내외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아רכ예슬기록원 소장 기록 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록 간의 상호 맥락정보 추출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메타데이터의 구조 설계
- 도출된 메타데이터에 따른 기록 내용정리 및 목록화

*** 데이터모델링과 시범적 DB 시뮬레이션 제공**

- 개념적·논리적 데이터 모델 구성
- 기록물의 특성 및 아רכ예슬기록원 기록물의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기초안 제시
- 과업 완료 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 형태를 구상할 수 있는 시범적 시뮬레이션 제공

구분	세부구분	9월 3주	9월 4주	9월 5주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12월 5주
			최수보교과												최수보교과		최수남교과
원천기록물수집 -인쇄매체보도	기초자료 확보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기존데이터 가공 및 검증																
	추가데이터 조사 및 수집																
	이미지 가공 및 텍스트화																
	대조 및 검증작업																
	수집사항 접수																
원천기록물수집 -도록/도판	검수반영 및 정리																
	도록원본 확보 및 수집																
	수집사항 접수																
	이미지 가공 및 텍스트화																
	검수반영 및 정리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데이터 입력 및 텍스트화																
원천기록물수집 -기타자료	이미지 가공																
	대조 및 검증작업																
	수집사항 접수																
	검수반영 및 정리																
	자료파악 및 기초정보 수집																
	소장기관 및 촬영여부 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메타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모델링 기초안 설계	데이터 입력 및 텍스트화																
	촬영 조율 및 진행																
	수집사항 접수																
	검수반영 및 정리																
	자문회의									1차				2차		3차	
	관련자료 및 구상안 전달																
	자문안 전달																
	프레임																
	기술지원서/데이터모델링 최종안																
	시뮬레이션 구현																

I. 수집 대상 선정 및 수집과 가공

- 원천기록물 유형을 **보도매체, 도록 및 도판, 기타자료**로 대분류
- 국내외 조선미술전람회 기록물 주요 소장 기관 조사(전문 연구기관, 국공립 도서관/미술관/박물관/화랑, 유족)
- 인계 가능 자료와 발굴/수집 필요 자료 유형별 목록화
- 기존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신규 자료(도록 미발행 전람회차 리플렛, 상장, 우대권 등) 우선 수집 대상 포함

1. 관설미술공모전 보도 매체 기록물(신문, 잡지, 관보)

- 조선미술전람회가 시행된 1920년대 초반에서 1944년까지의 관설 미술공모전 관련 일간지, 잡지 및 관보에 실린 기사 및 비평 망라
- 최종적으로 확보한 인쇄매체의 건(레코드) 수는 8581개: 이미지 5775건 텍스트 2806건
- 기 확보 보도 매체 자료 보완 및 고도화 추진

순번	매체구분	매체명(한글)	매체명(영문)
계	34종		
1	신문	경성일보	京城日報
2	신문	동아일보	東亞日報
3	신문	매일신보	每日申報
4	신문	시대일보	時代日報
5	신문	조선일보	朝鮮日報
6	신문	조선중앙일보	朝鮮中央日報
7	신문	중외일보	中外日報
8	신문	조선시보	朝鮮時報
9	신문	조선신문	朝鮮新聞
10	신문	중앙일보	中央日報
11	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朝鮮總督府官報
12	신문	대만매일신문	大漢每日新聞
13	잡지	개벽	開闢
14	잡지	동광	東光
15	잡지	문장	文章
16	잡지	문화조선	文化朝鮮
17	잡지	박문	博文

순번	매체구분	매체명(한글)	매체명(영문)
18	잡지	별건곤	別乾坤
19	잡지	사해공론	四海公論
20	잡지	삼천리	三千里
21	잡지	신동아	新東亞
22	잡지	신민	新民
23	잡지	인문월권	人文月權
24	잡지	제일선	第一線
25	잡지	조광	朝光
26	잡지	조선	朝鮮
27	잡지	조선지광	朝鮮之光
28	잡지	종명	衆明
29	잡지	청색지	靑色紙
30	잡지	춘추	春秋
31	잡지	현대평론	現代評論
32	잡지	조선의교육연구	朝鮮の敎育研究
33	잡지	조선금만주	朝鮮及滿洲
34	잡지	문교의조선	文敎の朝鮮

신문 12종, 잡지 22종 모두 34 종의 보도매체 자료

보도매체 관련 수집 데이터의 속성 및 정의

수집 속성	정의
식별번호	레코드 구분 일련번호
매체구분	신문, 잡지 등의 구분
언어	언어 구분
기사구분	기사 종류 구분
기사명(원문)	기사의 원문
기사명(한자독음한글표기)	기사의 한자독음 한글 표기
기사명(현대한국어번역)*	기사의 현대한국어 번역
필자명(원문)	필자명 원문
필자명(한글)	필자명 한자독음 한글 표기
매체명(원문)	매체명 원문
매체명(한글)	매체명 한자독음 한글 표기
발행일	매체 발행일
발행처	매체 발행처
호(신문)	신문매체 호 정보
판	신문매체 판 정보
면(시작)	신문매체 기사 시작 면
면(끝)	신문매체 기사 끝 면
연수	신문매체 기사 연 수

수집 속성	정의
단	신문매체 기사 시작 단
권	잡지 등 기타 매체 권 정보
호	잡지 등 기타 매체 호 정보
페이지(시작)	잡지 등 기타 매체 기사 시작 페이지
페이지(끝)	잡지 등 기타 매체 기사 끝 페이지
페이지수	잡지 등 기타 매체 기사 페이지 수
관련공모전식별번호*	관련공모전식별번호
관련작인물식별번호*	관련작인물식별번호
관련작품식별번호*	관련작품식별번호
면이미지	매체 면 이미지 파일명
기사이미지	해당 기사 이미지 파일명
소장처	소장 기관
디지털본URL	디지털 본 접근 주소
기사텍스트	기사 내용 텍스트화
키워드*	키워드
비고	비고

2. 관설미술공모전 도록 및 도판

- 관설미술공모전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도록을 수집하여 도록 이미지와 도판 이미지들을 가공, 데이터화하는 작업
- 본 사업의 대상인 조선미술전람회의 경우 1회부터 19회까지 19권의 도록 발간
- 사업 수행 결과 최종적으로 확보한 도록 관련 총 기록물(레코드) 수는 11557건: 이미지 5769건, 텍스트 5769건, 도록(발행정보) 19건

도록 관련 수집 데이터의 속성 및 정의

수집 속성	정의
도록식별번호	레코드 구분 식별번호
제목(원문)	도록 제목 원문
제목(한글)	도록 제목 한자 한글 표기
인쇄일	도록 인쇄일
발행일	도록 발행일
지작경발행자	도록 지작 경 발행자
인쇄자	도록 인쇄자
평가	도록 평가
페이지 수(인쇄된 내지)	도록 페이지 수
재본유형	도록 재본 유형
소장처	소장처
대표언어	대표언어
도록이미지	도록 이미지 파일명
디지털본URL	디지털 본 접근 주소
관련공모전식별번호*	관련공모전식별번호
비고	비고

도판 관련 수집 데이터의 속성 및 정의

수집 속성	정의
도판식별번호	레코드 구분 식별번호
표기제목(원문)	도록에 인쇄된 제목 원문
표기제목(한자독음한글표기)	도록에 인쇄된 제목 한자독음 한글표기
표기제목(현대한국어번역)*	도록에 인쇄된 제목 현대 한국어 번역
표기 호(원문)	도록에 인쇄된 작가의 호 원문
표기 호(한자독음한글표기)	도록에 인쇄된 작가의 호 한자독음 한글표기
표기작가명(원문)	도록에 인쇄된 작가명 원문
표기작가명(한자독음한글표기)	도록에 인쇄된 작가명 한자독음 한글표기
표기지역(원문)	도록에 인쇄된 작가 활동 지역
기타표기사항(원문)	도록에 인쇄된 기타 내용
도록 내 텍스트	도록에 인쇄된 텍스트 전체
도록식별번호*	관련도록식별번호
도판이미지	도판 이미지 파일명
부문구분(원문)	참가 부문
부문명(원문)	참가 부문명
표기수록페이지	도록에 인쇄된 도판 수록 페이지
페이지 내 수록순서	페이지 내 수록 순서
수상유형	관설미술공모전 수상 유형
참가유형	관설미술공모전 참가 유형
관련인물식별번호*	관련인물식별번호
관련공모전식별번호*	관련공모전식별번호

3. 관설미술공모전 기타자료 수집

- 관설미술공모전 기타자료는 공모전과 관련된 다양한 실물 자료들을 총칭
- 당시 전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리플렛, 우대권, 홍보물, 우대권, 엽서 등 일종의 유물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사료 등이 포함
- 조선미술전람회와 관련된 기타자료들을 파악하여 자료를 수집, 정보 입력, 데이터화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촬영을 통해 이미지 확보

기타자료 관련 수집 데이터의 속성 및 정의

수집 속성	정의
기타자료식별번호	레코드 구분 식별번호
공모전구분	관련 공모전
자료분류	자료 형태 분류
자료명	자료명
수량	자료 수량
시대	자료 생산 시대
생산연도	자료 생산 연도
생산자	자료 생산자
재질	재질
크기	크기
소장처	소장처
자료 내 텍스트	자료 내 인쇄된 텍스트
설명 및 제공정보	자료에 대한 설명 및 기타 정보 제공
관련공모전식별번호*	관련공모전식별번호
관련인물식별번호*	관련인물식별번호
관련작품식별번호*	관련작품식별번호
키워드*	키워드
기타자료이미지	기타자료 이미지 파일명
소장처 명칭	소장처에서 사용되는 명칭
소장처 관리번호/코드	소장처에서 부여된 관리번호/코드
디지털본 URL	디지털본 접근 주소

기존 자료			최종 결과물		
유형	결과물 형태	수량	유형	결과물 형태	수량
전람회 도록 표지 및 내지	이미지	5,000+@	전람회 도록 표지 및 내지	이미지	3,771
전람회 엽서			전람회 엽서/봉투		32
신문/잡지			*도록		5769
유리건판			유리건판 자료		23
영상			신문/잡지		5,597
기타			관보		159
소계			기타 (리플렛/상장 외)		19
		5,000+@	소계		15,370
신문 기사 건별 항목 및 본문	텍스트	5,000건+@	*도록 서지/발행정보	텍스트	19
			*도록 내지		5,769
			*전람회 임/수상작(작품)		5,869
잡지 기사 건별 항목 및 본문			*인물 -임/수상/참조 -심사위원 -행정과		1,974
			신문 기사 건별 항목 및 본문		2,593
			잡지 기사 건별 항목 및 본문		101
관보 및 정부기록물 항목정보 및 본문			*관보 및 정부기록물 항목정보 및 본문		112
소계		5,000+@	소계		16,437

* 붉은색: 신규 수집 결과물

Ⅱ.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1. 전시
2. 인물
3. 작품
4. 자료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를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 세부 보고

오혜진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본 사업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에 의해 1922년부터 1944년까지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의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첫째,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사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확보 과정은 사단법인 한국미술연구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선미술전람회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문의 뉘앙스와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렇게 정리된 기사는 총 1,500여 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당시의 미술 전람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되었다.

둘째,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당시 전시장에서 사용된 도록 원본을 디지털화하였다.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고해상도 스캐너를 사용하여 원본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디테일을 확보하였다. 이후, 각 도록의 페이지를 이미지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입력된 이미지는 OCR(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 텍스트화되었으며, 도록의 제목, 인쇄일, 발행일 등 다양한 속성을 정의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시 작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작품 정보는 총 3,000여 건으로, 이는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시 작품 목록을 완벽에 가깝게 재구성한 것이다.

셋째, 기타 자료 수집 과정은 조선미술전람회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전시장에서 사용된 리플렛, 우대권, 홍보물, 엽서 등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이를 촬영하여 이미지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각각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텍스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보존 처리된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촬영된 이미지는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었다. 수집된 기타 자료는 총 500여 건으로, 이는 조선미술전람회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넷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증 과정에서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연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입력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며,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조선미술전람회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후속 관설미술공모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미술전람회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미술 경향과 작품의 변천사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은 조선미술전람회의 역사적 의의와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미술전람회가 한국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하고, 일제 강점기 동안의 미술 활동과 그 속에서 발현된 예술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하여 한국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 연구와 전시 기획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선미술전람회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조선미술전람회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조선미술전람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기획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국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선미술전람회 (1922-1944)를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 세부보고

오혜진 | 한국미술연구소



보고 목표

- 사업 수행 방식 소개
- 관설미술공모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 수행 시 중요 사항



수행 영역

원천기록물의
수집 및 가공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모델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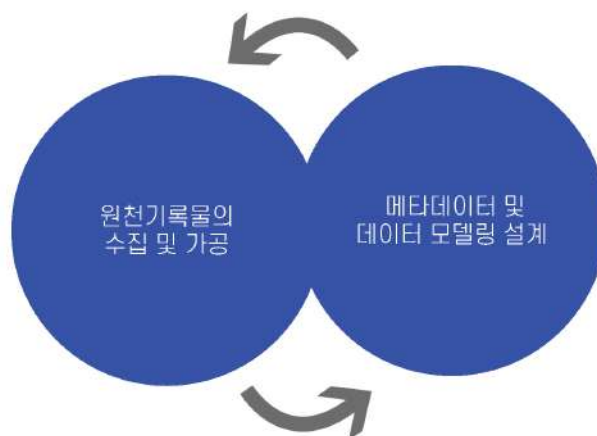
원천기록물 수집 및 가공★

-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수록 작품 이미지, 도록 내 텍스트
- 인쇄매체의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사의 서지정보, 이미지, 기사 텍스트
- 다양한 실물 자료들의 이미지 및 기술(descriptive) 정보 등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모델링 설계 ✦

- 어떤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할지 결정
-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을 구축할지 구상
-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기 위한 기반 작업 결정

수행영역



데이터베이스 시뮬레이션

구상의
구현 가능여부
확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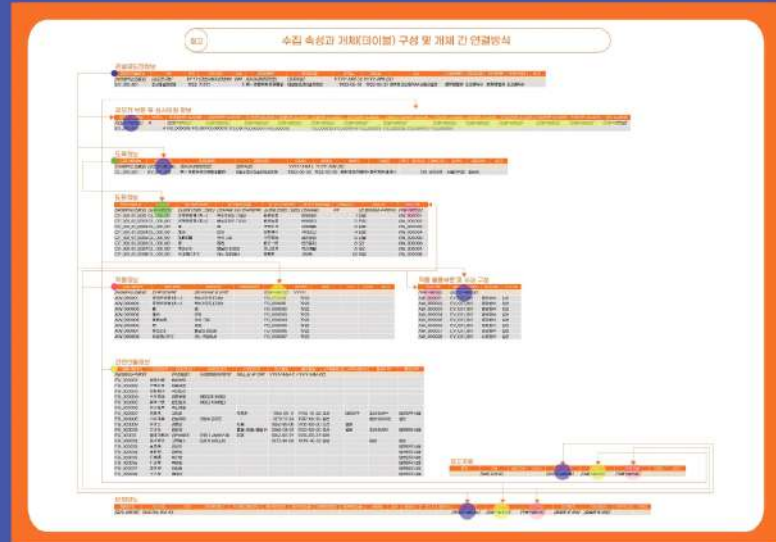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
데이터 반영

약식 예시
(샘플)

데이터베이스 시뮬레이션 추가작업★

- 각 데이터 레코드에 필요한 키워드를 입력, 추가적인 연계 테이블 생성 등
- 후반 작업이 원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실제 활용될 수 있게 함

수집 속성과 개체(테이블) 구성 및 개체 간 연결방식 구상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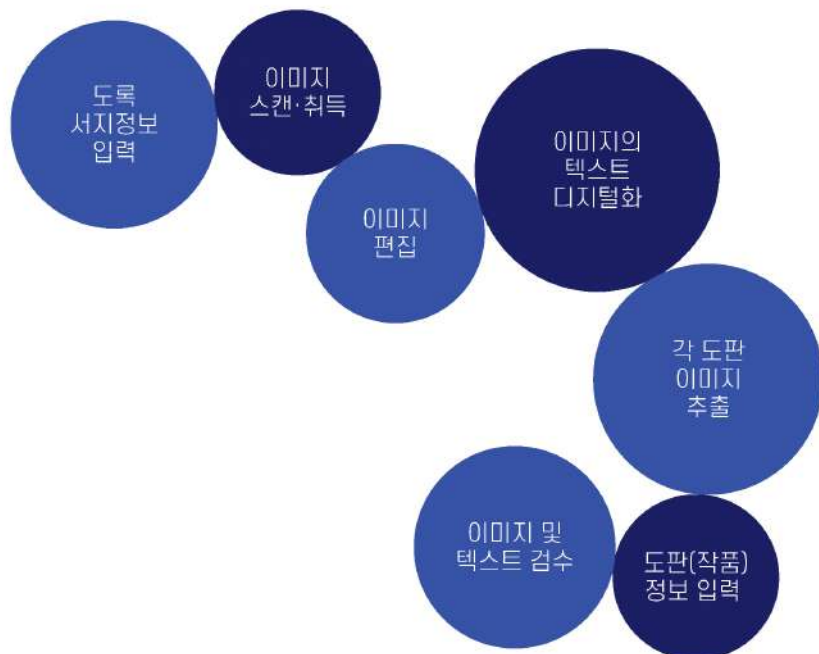
수집 속성과 개체 구성 및 개체 간 연결방식 구상안 ✨

- DB 요구사항 분석·제시에 주제전문가(미술관련 연구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주제
- 원자료 수집 시작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어려움
- 그러나 이를 고려한 초기 계획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개발과정과 연계성이 증가
- 실제 수요층의 요구 반영 가능성 확대

원자료 기준 업무구분



도록 수집 및 가공 과정



- 조선미술전람회의 시행 당시 신문, 잡지, 정부 간행물 등에 게재된 관련 기사
- 수집 대상 및 범위 파악 상대적으로 넓음
- ① 한국미술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던 자료와 ② 타 기관 고신문 아카이브 및 원문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

[illegible]

인쇄매체 관련 한국미술연구소 기존 자료

- 수집 규모와 위치에 대한 지형도의 역할
- 다량의 추가적 데이터화 작업 시행
- 현재 이용가능한 고시문 아카이브들과의 대조를 통한 검수
- 디지털 텍스트화 작업 및 이미지의 수집 진행
- 기존자료에 누락되었던 기사 다량 추가

인쇄매체 수집 및 가공 과정

사전조사작업

기사
서지정보
입력

이미지
스캔·취득

이미지
편집

기사 텍스트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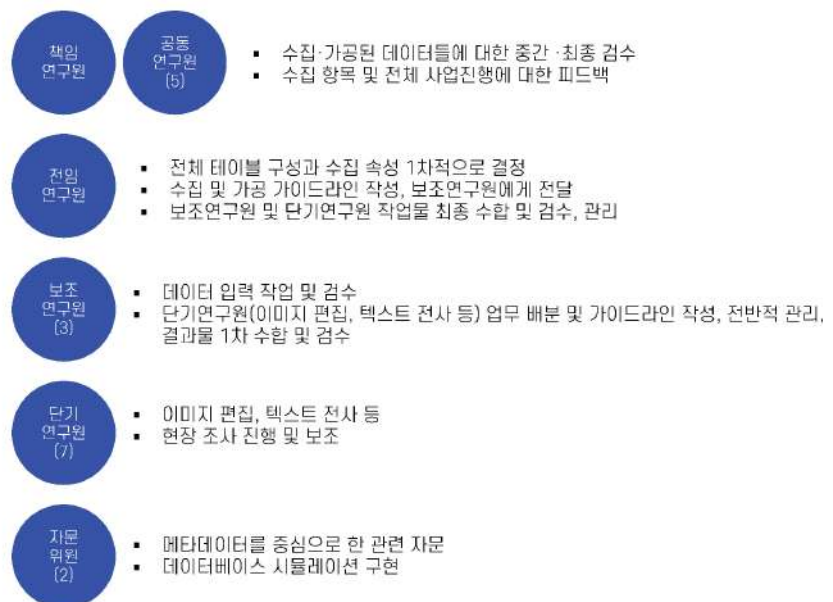
텍스트
및 이미지
검수

각 기사
이미지
추출

기타 자료 수집 및 가공 과정

- 공모전 관련 실물 자료 총칭 (리플렛, 우대권, 홍보물, 엽서 등)
- 국내 기관 및 개인 소장 관련 자료 포함

인력구성 및 업무흐름



가이드 라인

- 매뉴얼, 업무 지침
- 데이터 수집 시 각 속성(항목)별 정의 및 입력 검수 방식 상세히 기술
- 사업 기간 내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업데이트

실제 사용 가이드라인

최종보고회 제출본

인쇄매체보도 가이드라인 '기사 입력'

5. 기사명과 관련된 3가지 속성(항목)들

5.1. 기사명(원문)

- 5.1.1. 실제 인쇄된 기사 타이틀 원문 입력
- 5.1.2.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옛 한글 문자(ㄸ, ㅞ, 아래아 등)의 경우에도 원문 그대로 입력
- 5.1.3. 일본어 한자의 경우 현대일본어에서 사용하는 신자체가 아닌 근대기에 사용한 구자체 그대로 입력 (ex. 신자체: 會 / 구자체: 會)

5.2. 기사명(한자독음/한글표기)

- 5.2.1. 원문이 국한문체인 한자를 모두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 (ex. 朝鮮의美術展覽會 → 조선의 미술전람회)
- 5.2.2. 원문에 한자가 포함된 외국어인 경우 한자만 모두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원어를 그대로 두어 입력. 이는 이후 검색의 편의를 위한 작업 (ex. 朝鮮의美術展覽會 → 조선의 미술전람회)
- 5.2.3. 순한국어 혹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어인 경우 공란처리

5.3. 기사명(현대한국어번역)

- 5.3.1. 원문이 한국어이며 현대한국어의 표기법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공란처리
- 5.3.2. 원문이 한국어거나 현대한국어의 표기법과 차이가 있을 경우 현대한국어 번역을 입력 (ex. 히앗다 → 히렸다)
- 5.3.3.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 현대한국어 번역을 입력, 번역작업이 불가능할 시 '번역요'를 입력



『每日申報』 1922년 5월 22일 3면



『京城日報』 1922년 5월 23일 4면

기사명(원문)	기사명(한자독음/한글표기)	기사명(현대한국어번역)
朝鮮美術(五) 出品準備에忙殺한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조선포진(오) 출품준비에망각한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조선미술(5) 출품준비에 망각한 龍蛇飛騰의 筆法 龍蛇飛騰의 筆法 龍蛇飛騰의 筆法 龍蛇飛騰의 筆法 龍蛇飛騰의 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龍蛇飛騰의筆法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및 필요성 ★

- 사업 기간 내 총 23 건의 가이드라인 생성
- 여러 명이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균일한 질의 정보 값 생산을 위해 필수적
- 이후 데이터베이스 개발 시 사용자의 요구사항 명확하게 함
- 개발 단계에서 논리적/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과정에 도움
-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 제안요청서의 형식과 유사, 업무 이관 시 의사소통 보조

가이드라인과 인력구성 ★

- 가이드라인의 작성, 정확한 이해와 수행, 평가 능력
- 본인의 구상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형식이자 소통방식
- 전문지식을 주제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주제전문가의 투입
- 실제 연구 경험이 해당 주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의 바탕
- 다만 주제전문가인 동시에 가이드라인 작성·이해·수행할 능력이 요구됨
- 가이드라인과 테이블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업의 방향성(최종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과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



| 2부 |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의 지속적 확장의 필요성

사회 : 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장)

한국 근대 관전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필요성

홍선표
(한국미술연구소 이사장)

국가가 주최하는 공모전을 겸한 관설전람회(약칭 관전)는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소비의 공공화, 나아가 미술저널리즘과 비평의 본격화와 관중의 탄생 및 대중화를 전인하며 근대미술 전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미술계 인재의 재생산과 더불어 미술가의 사회적 명성과 예술가로서의 영광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근대 관전의 모델이 된 것은 프랑스 ‘살롱’ 전이다. 프랑스 국전인 살롱전은 ‘태양왕’ 루이14세 때 절대왕정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비해 후진적이던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말까지 2세기간에 걸쳐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1789년의 대혁명이 이후 아카데미의 독점에서 벗어나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응모 심사제의 국제적 규모가 되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강대국으로 도약했으며, 근세 이탈리아에 이어 서구 근대미술의 중심이 된다.

프랑스 살롱전은 미술이 지적이며 예술적 소산이라는 진보적 운동과 결부되어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왕립회화조각아카데미(대혁명 이후 미술학교로 바뀜)’에서 주관했다. 인체 데생을 기본 교육으로 육성된 미술 아카데미의 아카데미즘이 살롱의 관전양식을 이루었으며, 점차 신고전주의에 이어 낭만주의와 함께 자연주의 풍경화와 관학화된 인상주의인 외광파도 수용했다. 사실상 모더니즘도 살롱전의 모순과 대립, 타협과 변화의 맥락에서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 아카데미와 정부가 결탁하여 새로운 미술사조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술아카데미를 약체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위미술로서의 모더니즘 진출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살롱전이 제정(帝政)과 공화정을 거치며 아카데미즘과 더불어 당시의 모더니즘을 수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받아들였지만, 미술가협회를 만들어 관할을 넘기고 폐기한 것은, 상당 부분 작품 판매장으로 세속화되면서 정부의 지원 감소 및 앙데팡당 등 반(反)관전의 분위기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발달로 비대해진 미술시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재부를 쌓으며 구매층의 중심을 이루게 된 신흥 부르주아의 취향이 작용하는 화랑과 같은 미술시장과 결부된 개인전에 의해 작가를 발굴하고, 평론을 동원해 작가론과 관전 수상에 버금가는 경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의 중심이 국가와 귀족에서 시장과 새로운 취향의 부르주아 구매층, 그리고 진보적인 비평가와 저널리즘 주도로 옮겨 가면서 살롱전이 보수주의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관전은 ‘서양’과 대척 개념의 ‘동양’을 만들고 그 중심에 선 근대 일본에 의해 1907년 개최되어 38년간 지속된다. 프랑스 살롱전이 폐기된 지 20여년 뒤에 문부성 주최로 관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적극적인 서구화로 부국강병을 이루면서 유럽 강대국과 같은 제국 일본의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의 승리로 ‘동양의 패권국’이 되었지만, 아직 근대미술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봉건적 막부 통치기의 분열된 화파를 중앙집권적 국가 주도로 통합

하여 미술 발달의 축진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887년 도쿄미술학교 설립에 이어 제국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일등국 문화’로서 ‘미술’의 진흥을 위해 열린 문부성미술전람회(약칭 문전)는, 서양화와 조각부를 통해 근대미술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프랑스 살롱전을 모델로 제도화하면서, 이와 다르게 자포니즘의 원류인 일본화를 제1부로 구성하여 일본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1927년에 제4부로 미술공예부를 신설하여 제국화된 일본주의를 보강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관전은 제국 일본의 강점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되어 대한제국에서 과거 제후국의 국호이던 ‘조선’으로 강등된 식민지 조선을 직접 통치하던 정부인 총독부 주최로 창설되었다. 식민지 본국 문전의 후신인 제국미술전람회(약칭 제전)를 모델로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조선미전)로 개칭되어 1944년까지 23년간 열리면서, ‘서화’에서 ‘미술’ 또는 ‘전람회 미술’로의 전환과, 보편적 근대화와 식민지 근대화가 착종한 한국 근대미술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관전으로서의 보편성과 함께 재조선 거주민만 출품할 수 있는 지방색 조장의 국지적 성향으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선미전은, 미술가의 등용문이자 입신출세의 교두보로, 최대의 작품군을 이루면서 식민지 조선의 미술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며 근대미술 전개에 ‘등뼈’처럼 중추적 역할을 했다. ‘미술’이 관중과 언론 등을 통해 사회로 보급되는 계기와 관심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조선미전에서 입특선하기 위해 반입된 작품은 제1회전 403점에서 계속 증가하여 제6회전 이후 1,100점~1,200여 점에 달했으며, 서양화부의 경우 평균 70%의 낙선율을 뚫고 입선되는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출품자들은 입선을 위해 ‘생명을 다해 집중’했거나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렸다고 했다. 남농 허건이 「나의 畫道생활 20년과 그 주변」에 대해 쓴 글을 보면 조선미전에 입선하기 위한 노력, 미술계의 대단한 출품열, 입선자 발표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법석을 이룬 발표장에서의 희비가 엇갈리는 열기 등이 실감 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근대기 미술계 최고의 이벤트였던 조선미전은 제1회전 2만 8천여 명에서 제22회전 8만 4천8백여 명(『朝鮮事情』)으로 증가된 관람객과, 각종 신문 및 잡지, 관보 등의 기사와 평문을 통해 “그림의 사회상식과 일반상식이 널리 확대되어” “옆으로 확장이라는 목적을 달성”(『朝鮮及滿洲』 1932,6) 함으로써 근대 이전의 한정된 소비에서 대중화의 동인이 되었다. 미술학교 설립 대안으로 설립된 동기가 있는 조선미전은 미술교육의 학습장 역할도 하여 단체관람 학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전을 구태와 보수주의의 아성으로 미술 발전을 저해한 제도로 보는 시각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부진한 실정인데, 조선미전은 초기부터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이 공존했으며, 신흥미술도 수용하는 등 ‘1인1파’로 인식되었을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신경향 모더니즘’ 또는 ‘신흥미술’을 통해 근대미술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현대미술의 산실로도 작용했다. 근대미술 구축의 제반 요소를 제도화하고 대중화하는 데에도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미전은 보편적 근대와 식민지 근대를 내포한 한국 근대미술의 실제적 양상 파악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조선미전을 주류로 전개된 한국 근대미술은 현대미술의 원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근대미술의 흐름을 이끈 조선미전과 관련된 정보를 내장한 자료를 사회문화와 시각문화 전반에 걸쳐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저장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친일, 반일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민족주의와, 전위사조 교체사관에 의한 탐신주의의 협공으로 초래된 관전 연구의 부진함을 극복하고, 자료가 말해주는 미술사 서술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망라한 충실한 아카이브의 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아카이브의 가치를 선별하고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의 지원과, 관련 기술학과의 공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정책적 방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한국 근대 관전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필요성

홍 선 표
한국미술연구소



국가가 주최하는 공모전을 겸한 관설전람회(약칭 관전)는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소비의 공공화, 나아가 미술저널리즘과 비평의 본격화와, 관중의 탄생 및 대중화를 견인하며 근대미술의 수립과 전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미술계 인재의 재생산과 더불어 미술가의 사회적 명성과 예술가로서의 영광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근대 관전의 모델이 된 것은 프랑스 '살롱'전이다. 프랑스 국전인 살롱전은 '태양왕' 루이14세 때, 절대왕정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르네상스 종주국 이탈리아에 비해 후진적이던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말까지(1667~1799) 2세기만에 걸쳐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 아카데미의 독점에서 벗어나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응모 심사제의 국제적 규모가 되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강대국으로 도약했으며, 근세 이탈리아에 이어 서구 근대미술의 중심이 된다.



1699년 루브르 대회랑에서 열린 관전(관화)
1725년 루브르 '살롱 카레'에서 전시 이후 '살롱'전



살롱전 심사 광경

프랑스 살롱전은 미술이 지적이며 예술적 소산이라는 진보적 운동과 결부되어 '학자적 예술가'를 육성하는 '순정미술' 중심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왕립회화조각아카데미'에서 주관했다. 인체 데생을 기본으로 양성된 미술 아카데미의 아카데미즘이 살롱의 관전양식을 이루었으며, 점차 신고전주의에 이어 낭만주의와 함께 자연주의 풍경화와 관학화된 인상주의인 외광파도 수용했다. 사실상 모더니즘도 살롱전의 모순과 대립, 타협과 변화의 맥락에서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아카데미와 정부가 결탁하여 새로운 미술사조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술아카데미를 약체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모더니즘 진술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아 비아르, <오후 4시의 살롱> 1847년

모네
<온푸르의 세느 하구>
1865년 살롱 입선작



살롱전이 제정(帝政)과 공화정을 거치며 모더니즘을 수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받아들였지만, 미술가협회를 만들어 관할을 넘기고 관전을 폐기한 것은, 상당 부분 작품 판매장으로 세속화되면서 정부의 지원 감소 및 앙데팡당 등 반(反)관전의 분위기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발달로 비대해진 미술시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달로 재부를 쌓으며 구매층의 중심을 이루게 된 신흥 부르주아의 취향이 작용하는 화랑과 같은 미술시장과 결부된 개인전에 의해 작가를 발굴하고 평론을 동원해 작가론과 관전 수상에 버금가는 경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의 중심이 왕실과 귀족에서, 시장과 새로운 '근대주의' 취향의 부르주아 구매층, 그리고 진보적인 비평가와 저널리즘 주도로 옮겨가면서 살롱전이 보수주의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관전은 '서양'과 대척 개념의 '동양'을 만들고 그 중심에 선 근대 일본에 의해 1907년 개최되어 38년간 지속된다. (패전후에도 4년간 열림)프랑스 관전이 폐기된 지 8년 뒤에 문부성 주최로 관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적극적인 서구화로 부국강병을 이루면서 유럽 열강과 같은 제국 일본의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의 승리로 '동양의 패권국'이 되었지만, 아직 근대미술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봉건적 막부 통치기의 분열된 화파를 중앙집권적 국가 주도로 통합하여 미술 발달의 촉진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887년 도쿄미술학교 설립에 이어 제국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일등국 문화'로서 '미술'의 진흥을 위해 열린 문부성미술전람회(문전)는 '서양화부'와 '조각부'를 통해 근대미술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프랑스 살롱전을 모델로 제도화하면서, 이와 다르게 자포니즘의 원류인 일본화를 제1부로 구성하여 자국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1927년에 제4부로 '미술공예부'를 신설하여 제국화된 일본주의(=동양주의)를 보강하기도 했다.



제5회 문전 도록

한국에서 관전은 제국 일본의 강점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되어 대한제국에서 과거 제후국의 국호이던 '조선'으로 강등된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던 정부인 총독부 주최로 창설되었다. 식민지 본국 문전의 후신인 제국미술전람회(제전)을 모델로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조선미전)으로 개최되어 1944년까지 23년간 열리면서, '서화'에서 '미술' 또는 '전람회 미술'로의 전환과, 보편적 근대화와 식민지 근대화가 착중한 한국 근대미술의 성격 형성과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제전과 다르게 재조선 거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국지적 조건의 제한과 식민지 지방색 조장에도 불구하고 조선미전은, 미술가의 등용문이자 입신출세의 교두보로 최대의 작품군을 이루면서 식민지 조선의 미술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며 근대미술 전개에 등뼈처럼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미술이 관중과 언론을 통해 사회로 보급되고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조선미전에서 입특선하기 위해 반입된 작품은 제1회전 403점에서 계속 증가하여 제6회전 이후 1100~1200여점에 달했으며, 가장 많이 출품된 서양화부의 경우 평균 70%의 낙선율을 뚫고 입선되는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출품자들은 입선을 위해 "생명을 다해 집중했거나"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렸다"고 했다(『경성일보』). 남농 허건이 「나의 화도생활 20년과 그 주변」에서 쓴 글을 보면, 조선미전에 입선하기 위한 노력, 미술계의 대단한 출품열, 입선자 발표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법석을 이룬 발표장에서의 희비가 엇갈리는 열기 등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제국미술원 회의 1919년



와다 에이사쿠, 구로다 세이키, 다카무라 코운
오가타 사브로스케, 모라 오가이, 마사키 나오히코
가와이 교루토



1922년

이처럼 근대기 미술계 최고 최대의 이벤트였던 조선미전은 제1회전 2만8천여명에서 제22회전 8만4천8백여명(『朝鮮事情』)으로 증가된 관람객과, 각종 신문 및 잡지, 관보 등을 통해 “그림의 사회상식과 일반상식이 널리 확대되어” “넓으로 확장이라는 목적을 달성”(『朝鮮及滿洲』)함으로써 근대 이전의 지배층 문방 중심의 한정된 소비에서 대중화의 동인이 되었다. 미술학교 설립의 대안으로 창설된 동기를 지닌 조선미전은, 미술교육과 감상의 학습장 역할도 하여 단체관람 학생으로 붐비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기에 조성된 음악감상, 영화감상과 함께 미술감상과 같은 취미생활을 확산시키게 된다.

『조선신문』
1930, 5.16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미전을 통해 미술의 근대화가 확산, 심화되고 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관전을 구태와 보수주의의 아성으로 미술의 발전을 저해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조선미전은 초기부터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이 공존했으며, 신흥미술도 수용하는 등, '1인1파'(『경성일보』)라고 했을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심사위원도 관전파뿐 아니라 재야파도 선정했다. 조선미전은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의 양식적 혼성장소이며, 자연주의와 비자연주의의 미학적 경합공간이기도 했다. 사생적 리얼리즘이 포함된 관학화된 인상파인 외광파 중심의 아카데미즘과 더불어 후기인상파(=주관파) 이후 현대미술의 기원이된 표현주의와 큐비즘, 포비즘, 미래파, 에콜드 파리 등, '프랑스 영향'의 '신경향파'이자 '신흥미술'인 '신경향 모더니즘'의 작품이 특선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러한 '신경향 모더니즘'이 반추상 양식으로, 국전을 비롯해 1950년대 한국미술의 현대화를 견인하며 성행한다.







조선미전은 근대미술 구축의 제반 요소를 제도화하고 대중화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처럼 '신경향 모더니즘' 또는 '신흥미술'을 통해 근대미술로의 도약을 이룩했는가 하면 현대미술의 산실로도 작용한 것이다. 또한 조선미전 아카이브는 기존의 유명 작가 중심으로 구성된 미술사 서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무명작가의 발굴과 재평가위해서도 중요하다. 역사적 실상은 과거에 이룩된 전모를 가능한 시야에 넣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데올로기 사관에 의해 선택된 역사는,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거나 허구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봉래는 조선미전 제2회전과 5회전까지 출품한 모더니스트 화가이자 조각가였는데, 근대미술사에서 잊혀져 있다. 대구와 평양의 보통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보아 사범학교 출신으로 짐작되는 그의 제5회전 서양화부 출품작 <좁은 비탈길 있는 풍경>은 표현주의풍 붓질의 교외풍경화로, 조선미전의 초기 모더니즘 전개에 선구적 의의를 지닌다. 스트록 타법에 의해 힘차게 가한 두터운 필촉으로 붓자국 자체에 생긴 입체감이 화면에 생동감을 주는 기법은 초기 국내파 작가로서 상당히 진보적이다.

특히 제4회전에는 조각분야에 <머리카락(髮)>이란 제목으로 나무상을 출품했다. 조각으로는 한국 최초로 도쿄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를 졸업한 김복진과 함께 조선인으로 처음 출품한 것이다. 조선미전의 전신 나무조각상으로도 김복진과 함께 최초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인 마이올의 원시주의적 영감을 토대로 나무상을 단순하고 관념적으로 조형한 고전적 모더니티풍을 연상시킨다. 김복진은 이 작품에 대해 '빠다(버터)'냄새가 나고 인체의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혹평했지만, 상체를 지탱하기 위해 뒤로 뻗은 우측 팔과 과장되게 쭉 뻗은 오른쪽 다리와의 긴장감이 나무의 내적 생명감을 자아낸다.



제1회전에서 3회전까지 서양화부에 출품한 정규익(1895~1925)도 미술사 서술에서 소외되었는데, 초기 서양화단에서 '젊은 별'로 촉망받던 국내파 화가였다. 그의 조선미전 풍경화는 다소 간략화된 형태와 거친 마티에르를 조성한 두드러진 필촉이 모네의 인상파 화풍을 연상시킨다. 그는 거의 잊혀진 화가지만, 조선인 서양화가 희소했던 초기 조선미전의 입선작가이자 최초의 부부화가로, 1922년의 삼미회를 비롯해 서울화회와 고려미술회, 신미사의 조직을 주도한 중심 멤버였고, 고려미술회를 확충한 고려미술원의 서양화부 강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고려미술원에서 1924년 8월에 김관호와 나혜석에 이어 조선인 서양화가로는 세번째로 30여명의 회원이 있는 '녹파양화회'의 후원으로 그동안 그렸던 70여점에서 골라 유화 18점과 수채화 6점을 출품해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정규익 근영
1925년
4회전 앞두고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조선미전은 보편적 근대와 식민지 근대를 내포한 한국 근대미술의 실제적 양상 파악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선미전을 주류로 전개된 한국 근대미술을 실상에 가깝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미술의 원류라는 측면에서도 각별하다. 한국미술계가 1920년대부터 서양화 주도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도 조선미전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미술의 구조와 흐름을 이끈 조선미전과 관련된 정보를 내장한 자료를 공공영역뿐 아니라 개인영역에 이르기까지 거시와 미시적 차원과, 사회문화와 시각문화 전반에 걸쳐 보다 더 내연과 외연을 확장해 발굴,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류와 보존 및 활용이 더욱 더 필요하다. 그동안 친일,반일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민족주의와, 신흥사조 교체사관에 의한 탐신주의의 협공으로 초래된 관전 인식의 편향을 극복하고, 단선적 발전사관에 의해 배제되거나 소외된 부분을 포함하여 자료가 말해주는 미술사 서술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망라한 충실한 아카이브의 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아카이브의 가치를 선별,탐색하고 기록과 정황 및 사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의 지원과, 관련 기록학과의 공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정책적 방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끝)

1950, 60년대 한국미술의 현대화와 국제화

문정희

(대만 국립타이난예술대학 부교수)

한국의 미술에서 ‘현대화(現代化)’와 ‘국제화(國際化)’ 문제는 194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창설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약칭 ‘국전(國展)’은 1948년 정부수립 후 9월 22일 문교부 고시 제1호에 의해 제도화된 미술 공모전이다. 문교부 내에 예술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람회 규약을 만들어 공식적인 관전으로 출발했다. 관전으로서 국전은 심사위원 선정과 작품 선정의 시비와 잡음이 발생하면서 점차 미술가들이 결속한 단체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결국 국전의 권위는 점차 사그라지면서 1981년을 마지막으로 관전은 민전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관전과 더불어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예술원’은 한국의 미술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1954년 7월에 개원했다. 약칭 예술원의 개설은 1952년 8월에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해 개원하여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예술원상 수여 등”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예술진흥 정책 이면에는 한국 전쟁 후 군사 경제의 건설을 위해 미국의 원조가 있었고, 이로써 예술문화에도 미약하나마 영향을 받았다.

1953년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 미 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선전기관인 戰時정보국의 후신 조직으로 출범한 연방 행정기관이자 대외홍보 기관이다)와 그 아래 주한 미 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을 두고 냉전 체제하에 방송과(Broadcasting Service), 미국의 도서 보급, 전시회 개최, 영어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에 따른 미국의 회화로 추상표현주의의 유입은 주한 미공보원(USIS)에 의해 직접적으로는 1957년 《미국 현대회화 조각 8인 작가전(Eight American Artists)》을 통해 들어왔고, 간접적으로는 USIS에 의해 시행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적인 문화 정책은 한국미술에도 현대화와 국제화의 여건에도 일조하게 된다. 1961년부터 이러한 USIA의 해외 선전 활동은 상호 교육 문화법(United States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Act of 1961—Fulbright-Hays Act)에 따라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한국의 미술 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해외 미술계의 동향에 대해 점차 관심과 희구는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높아졌고, 한국 전쟁으로 중단된 국전이 1953년 하반기에 재기하면서 미술가 단체인 대한미술가협회와 한국현대미술가협회(약칭 ‘한국미협’)에서 신규 대립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957년 젊은 미술가들의 ‘모던 아트협회’의 결성은 한국미술의 현대화에 더욱 큰 갈망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국전에서 신규 마찰과 대립은 겉으로 ‘사실’과 ‘추상’으로 드러나며 196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더 현대화의 추진이 추상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성을 띠게 된다.

한국미술은 1955년을 기점으로 기성 작가와 신예 작가들이 구미 각국으로 유학 혹은 고찰 여행 접촉하면서 현지 국제 화단에서 활동이 늘어난다. 권옥연, 김홍수, 함대정, 손동진, 박서보, 나희균, 장두건, 김창락, 이용환, 문신, 변중하, 전성우, 이대원, 김종하, 이세득 등은 단기 체류하며 연구 활동을 했다면,

구미에 체류했던 이응노, 이성자, 남관, 김환기, 김훈, 한묵, 김병기, 장발, 김창열, 김봉태, 방혜자, 이희세, 김봉기, 위상학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해외여행을 하게 동기는 1961년 군사혁명 정부에 의하여 국전의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수여된 유럽 연구 여행상금에 따랐다.

한국작가의 국제적 비엔날레에 참가 전 1957년 미국 뉴욕의 월드하우스 화랑 기획에 따라 프세티 여사가 내한하여 선별된 작품이 《한국현대회화전》에 출품되었고,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1962년에는 한국미협과 문교부 주관하에 마닐라에서 《한국현대작가전》이 1964년에는 한국미협과 공보부 주관으로 일본에서 《한국현대작가 이동(移動)전》이 1966년에는 한국미협과 정부 주관하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이 개최 등 모두 “현대”라는 이름을 달고 국제화의 일환에서 교류되었다.

국제전의 시대를 맞게 된 1960년대에 들어서면, 최초로 1961년 제2회 파리 비엔날레에 김창열, 정창섭, 장성순, 조용익이 참가했다. 당시 파리에 체류한 최완린 참사관과 유학생회장 신영철, 미술평론가 이일, 그리고 박서보에 의해 극적으로 한국 참가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1963년에는 박서보, 윤명로, 최기원, 김봉태의 참가, 1965년에는 이응노, 정상화, 하종현, 정영렬, 박종배, 최만린, 김종학 등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기성 작가에 맞서 한국미술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신예 작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규모 면에서 베니스 비엔날레에 다음 가는 1951년 창설된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1963년 제7회부터 참가하게 이른다. 이 비엔날레에 일본은 1951년부터, 대만은 1957년부터 참가했고 이후 한국의 참가는 늦었다. 청년 작가의 참가 조건이었던 파리 비엔날레와 달리, 국전 심사위원을 맡았던 기성 화단의 중진 작가인 김환기, 김기창, 유영국, 서세옥, 유강렬 등이 참가했다. 이어서 1965년 제8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는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했던 이응노, 권옥연, 박서보, 정창섭, 김창열, 이세득, 김종영 등이 참가했고, 여기서 이응노는 명예상을 수상해 국제전 참가 이래 처음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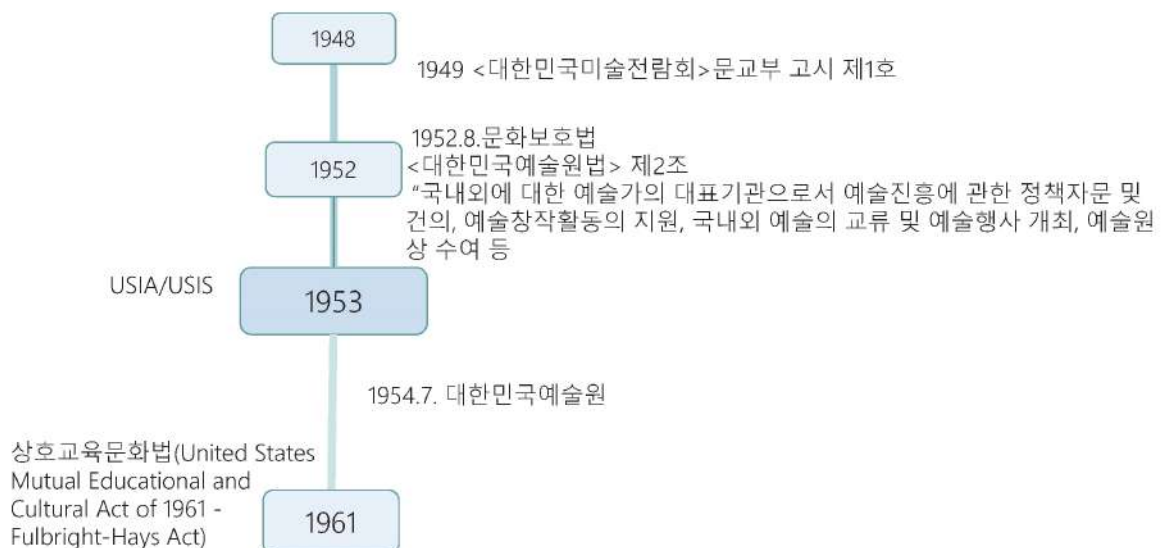
이와 같은 비엔날레 형태인 국제전의 참가는 한국미술 현대화의 과정이었고, 훗날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설립에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결국 1950, 60년대 국내의 관전인 국전을 바탕으로 신구의 대립을 거쳐 세계 미술로 나가려는 현대화는 바로 국제화의 도약이었음을 재고하게 된다.

1950,60년대 한국미술의 현대화와 국제화

문정희(국립타이난예술대학 부교수)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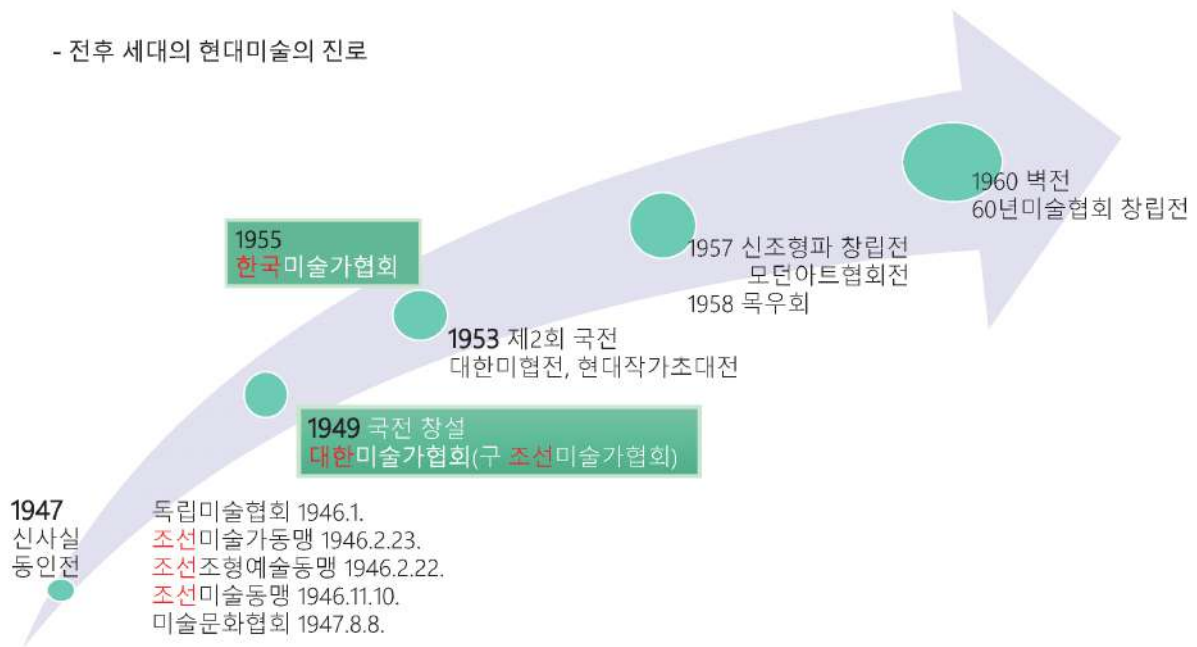
미술문화 보호와 진흥의 출발



1. 1953년 이후 대만과 한국의 국제 미술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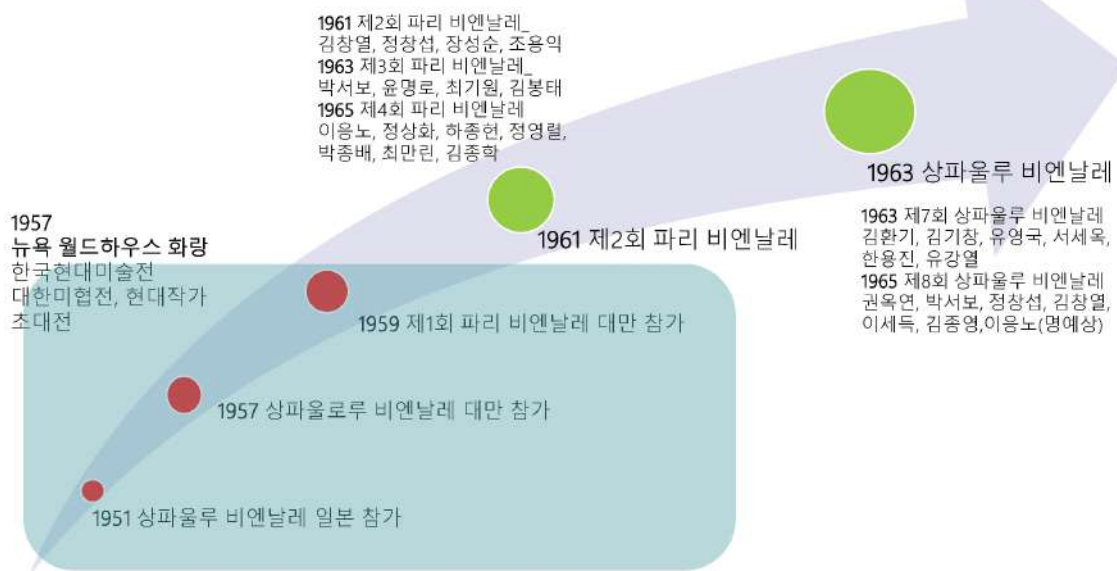
대만	1953	한국
	USIS(미공보처), USIA(미공보원)	
《美國版畫展》 대만 역사문물미술관 (현 국립역사박물관)	1957	《미국 현대회화 조각 8인 작가전(Eight American Artists)》 덕수궁 국립박물관 전시실
제1회 파리 청년작가 비엔날레 참가	1959	
《韓國現代美術展》 대만 역사문물미술관	1960	《동남아 한국현대 미전》 타이페이, 마닐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1961	제2회 파리 청년작가 비엔날레 참가

- 전후 세대의 현대미술의 진로



- 한국미술은 1955년을 기점으로 기성 작가와 신예 작가들이 구미 각국으로 유학 혹은 고찰여행 접착하면서 현지 국제 화단에서 활동이 늘어난다.
1965년에 이르면,
권옥연, 김홍수, 함대정, 손동진, 박서보, 나희균, 장두건, 김창락, 이용환, 문신, 변중하, 전성우, 이대원, 김종하, 이세득 등은 단기 체류하며 연구 활동.
구미에 체류했던 이용노, 이성자, 남관, 김한기, 김훈, 한묵, 김병기, 장발, 김창열, 김봉태, 방해자, 이희세, 김봉기, 위상학 등이 있다.
- 이들 가운데 해외 여행을 하게 동기는 1961년 군사혁명 정부에 의하여 국전의 대통령상수상자에게 수여된 유럽 연구여행상금에 따랐다.

2. 1960년대 국제전의 참가와 현대미술



- 청년 미술가들의 새로운 기대, 파리 비엔날레

- 한국보다 일찍 1959년 제1회 파리 비엔날레부터 참가한 대만은 이미 1957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참가의 경험이 되었다. 대만의 역사문화미술관(歷史文物美術館, 1956년 개관, 1957년 국립 역사박물관 개칭)은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작품 선정했다. 이때 대만 정부는 장정과 조례를 만들어 공시했고, 여기서 청년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전시는 모든 종류의 창의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며 포용의 정신으로 서양의 관심을 받기 노력한다. 가능한 한 젊은 미술가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비엔날레에 출품할 작품을 선정할 때 젊은 미술가들이 스스로를 젊은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1961年5月〈國立歷史博物館徵求青年藝術作品參加巴黎第二屆國際青年藝展章程原文及其有關條文節要〉

- 제2회부터 꾸준히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한 한국은 1967년 제5회에 이르면 커미셔너 조용익, 참가자는 김차섭, 임상진, 전성우(각각 회화 2점), 최만린, 박고석(조각 2점 씩)이 출품한다. 이를 정리한 유경채는 『예술원보』(1968)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제5회 파리 비엔날레, 9월 29일-11월 5일, 파리시립현대미술관, 54개국 1500점
“오늘의 세계미술의 방향을 말해주는 포프(팝 아트), 오프(옴 아트)에서 전광(電光)예술에 이르는 눈부시고 어지럽고 부도덕한 온통 발광적인 예술 형태의 도가니였다.” 파리 비엔날레는 35세 미만이 청년작가들의 가장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경연장이란 것이 특색이다. 한국에서도 회화와 조각이 참가하였으나 이렇다 할 반향은 없었다. 참가자 김차섭, 임상진, 전성우(각각 회화 2점), 최만린, 박고석(조각 2점 씩), 커미셔너 조용익, 국내전은 9월 개막

류경채, 「서양화」 『한국예술지』 권3(예술문화사, 1970), p.110.



정상화, <작품A>
1965년 제4회 파리 비엔날레 출품



류경재, <계절 67-1>
1967년 제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3. 현대미술의 무대, 상파울루 비엔날레

- 1951년 창설된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은 1963년 제7회부터 참가하게 이른다. 이 비엔날레에 일본은 1951년부터, 대만은 1957년부터 참가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첫번째 참가 작가는 청년 작가라는 참가 조건이었던 파리 비엔날레와 달리, 국전 심사위원을 맡았던 기성 화단의 중진 작가인 김환기, 김기창, 유영국, 서세옥, 유강렬 등이 참가했다. 이어서 1965년 제8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는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했던 이응노, 권옥연, 박서보, 정창섭, 김창열, 이세득, 김종영 등이 참가했고, 여기서 이응노는 명예상을 받아 처음으로 국제전 출품에서 수상을 기록했다.
- 비엔날 인터내셔널 데 상파울루(The Bienal Internacional de Sao Paulo, 약칭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1951년 이탈리아의 기업가 프란시스코 시칠로 마타라조 소브리뉴(Francisco Ciccillo Matarazzo Sobrinho, 1898~1977)에 의해 설립되었다. 문화적 전통이 강하지 않은 신흥국 브라질은 정부가 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엔날레를 지원했다. 이에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현대 미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부유한 기업의 컨소시엄도 정부와 협력하여 미술 교육을 장려하고 주요 도시에 미술관을 설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상파울루 비엔날레가 탄생했다.

-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형식은 초창기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고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브라질 작품 전시
2. 해외 작품 전시
3. 특별전



1951년 제1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전시장 외관
(<https://artouch.com/art-views/art-history/content-12752.html>)



1959년 제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전시 광경
(<https://artouch.com/art-views/art-history/content-12752.html>)

- 1956년 주브라질 중국(당시 China로 국명 표기)대사관은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으로부터 1957년 제4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초청되었다. 다만 외교부는 이 소식을 교육부에 알린 후 1957년 4월 교육부 담당하의 국립역사박물관이 주관처로 확정된다.

주브라질 대사관 ➡ 외교부 ➡ 교육부 ➡ 국립역사박물관



서신은『상파울루 미전 안(聖保羅美展案)』의「외교부 파일(外交部檔案)」로 국립역사박물관의 아카이브다.
사진은 《五月與東方—臺灣現代藝術運動的萌發》전(2024.2.22-4.20.)에서 필자 촬영

- 대만은 1957년 최초의 참가 이후 1959년 참가를 준비했고, 이때 당시 주(駐)브라질 대사 리디준(李迪俊)은 국립역사박물관 관장 바오준펑(包遵彭)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으로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예술 경향을 알렸다.

“지난 2년 동안 관찰한 브라질 미술계는 극단적인 신파(新派)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대체로 존경받는 작품은 야수파, 추상파, 표현파, 입체파, 초현실주의파의 작품뿐이다. 사실적인 작품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중국 및 외국 화보에서 볼 수 있는 후치중(胡奇中, 1927-2012)(피어밴드, 보트, 가을 시골)의 작품과 샤오친(蕭勤, 1935-2023)의 작품은 이 분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더 높은 영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회의 작품은 극단적인 신파 작품이어야 한다”.

「駐巴西大使館代電外交部 (1958 年 9 月 8 日)」, 「聖保羅美展案」 「外交部檔案」
典藏號 : 020-090502-0022



1959년 3월 20일 주브라질 대사 리디준 이 바오준펑 관장에게 보내 서신
사진은 《五月與東方—臺灣現代藝術運動的萌發》전(2024.2.22-4.20.)에서 필자 촬영

- 1951-1961년간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Museu de Arte Moderna de Sao Paulo, MAM-SP) 은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기구였고, 이 때 미술관은 상파울루 비엔날레 설립자 시칠로 마타라조(Ciccillo Matarazzo) 외에도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와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창조 협력 관계에 있었다.

- 따라서 상파울루 비엔날레 주관한 상파울루 미술관은 미국 문화예술의 확장과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시기 대만과 한국의 국제화를 위한 현대미술은 미국의 미술 경향을 따르는 자연스런 환경에 있었다.

Isobel Whitelegg, "The Bienal Internacional de Sao Paulo: A Concise History, 1951-2014," *Perspective* (Paris) 2013: 2 (Feb. 2013)

- 1961년 이후 상파울루 비엔날레 주관 기구는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에서 상파울루 재단(Fundacao Bienal de Sao Paulo, FBSP)으로 넘어간다. 한국의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참가는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이 아닌 상파울루 재단에서 초청했음을 의미한다.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도록 표지



1961년 제6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구부성(顧福生) 명예상 수상 기사, 『聯合報』, 8면



친송(秦松), <태양절> 목판화
1959년 제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명예상 수상



이응노, <컴포지션(Composition)>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명예상
이응노미술관

- 국내 국제 교류전

ISPAA(국제조형예술가회의 International Society of Plastic and Audio-Visual Art) 한국전, 8월 3일-12일, 신세계화랑

ISPAA 한국사무국과 중앙일보, 동양방송이 주최한 이 《국제친선미전》에는 브라질에서 12명의 작가가 판화 20점, 유화 11점을 그리고 10명의 시인이 합작한 입체조형면과 문학기호의 구체시 2조를 출품.

일본은 10명이 화가와 조각가가 19점의 회화, 3점은 조각 출품, 여기에 전자음악 테이프가 참가. 미국의 판화 2점,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의 작품 도착이 늦어 개막일에는 볼 수 없었다. 브라질, 일본, 미국, 한국 소규모전. 한국은 전성우, 최만린, 윤명노, 김영주, 김종학, 박서보, 유영국, 이세득, 정영렬, 정창섭, 조용익, 하중현, 김상유, 임상진 등 13명

류경채, 「서양화」 『한국예술지』 권3(예술문화사, 1970), pp. 110-111.

맺음말

오늘날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의 개최지가 된 한국은 초기 1960년대의 비엔날레 형태의 국제전 참가에서 발전해왔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전의 적극적인 참가는 한국미술의 현대화의 과정이었고, 훗날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설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다져진 현대미술의 국제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따라서 1950,60년대 국내의 관전인 국전을 바탕으로 신구의 대립을 거쳐 세계 미술로 나가려는 현대화는 바로 국제화의 도약이었음을 재고하게 된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DB구축과 활용을 통한 한국현대미술 재구성의 가능성

이민수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

국전이 제공하는 한국현대미술 로데이터

1949년 9월 22일 문교부 고시 제1호 규정으로 공포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의 주최를 맡은 문교부와 우리 미술계는 국가 차원의 공모전 행사를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대축제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그러나 국전은 창설 초부터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의 답습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심사위원과 추천작가 선정 및 특선작품 선정 과정에서의 파벌 시비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1949년 11월 15일, 경복궁 미술관에서 제1회 국전 개막 이후 1981년까지 총 30회 개최로 막을 내리고, 1982년부터는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바뀌어 관전이 아닌 민전으로 개최, 198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해 오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전개에서 국전의 역할은 지대하다. 국가 주도의 국내 최대 공모전인 만큼 30회기 개최 기간 내 응모 작가의 수는 누적 4만여 명에 이르며, 부문의 폐지와 신설,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제도의 변화 등은 당시 미술계 상황과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무엇보다 수상작품의 경향이나 연도별 주요 경향과 변화, 수상작가의 출신 학교나 심사위원과의 학맥 및 사승 관계, 또는 그 변화의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전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가 한국현대미술을 이루는 로데이터(Raw data)로 기능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전 연구의 성과와 한계

지금까지 국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국전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 또는 그 제도적 변화와 맞물리는 한국미술의 아카데미즘을 주제 삼아 수상작의 양상을 부문별로 조사해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술사연구자 권영진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한국 아카데미즘 형성에 끼친 영향」(2017)에서 요컨대 국전의 장르와 양식은 무척 다양하여, 윤곽을 종잡을 수 없고, 매년 수상작의 양식적 편차도 커서, 과연 국전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관전이라고 지적했듯이, 국전 아카데미즘의 실체와 전모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그 역시 서양화부에 한정해 수상작의 양상 변화를 살펴 결론을 도출한다.

권영진이 선행연구로 참고한 정혜경의 「현대 한국 서양화 사조 연구 - 국전 화풍을 중심으로」(2015)는 국전 서양화부의 화풍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작품의 경향을 분류하고 숫자화해 통계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전이 보수적인 사실적 화풍의 거점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개최 초기부터 반(半)추상 혹은 추상 화풍이 일정 비율을 차지했고, 1960년대 이후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했

음을 논증한다.

이들의 연구가 서양화부에 한정된 까닭은 해방 이후 특히 서양화부가 국전 내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부문과 장르별로 특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탓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동양화와 조각, 사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교 분석을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한 연구자가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일이 남아 있는 도록을 뒤져가며 도판을 확인하고 분석해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 및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점은 국전의 재조명을 표방한 전시에서도 드러난다. 오상길의 기획한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V- 국전을 통해 본 한국의 현대미술》(금보성 아트센터, 2017. 10. 18~11. 2)는 경직된 화풍을 강요하는 아카데미즘의 온상, 미술계 파벌들의 이진투구판 따위 오명을 쓴 채 미술사에서 외면당해온 국전 출품작들의 재조명과 복권을 위한 전시로, 한국화와 양화 출품작 30여 점을 재구성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별 작가들과 예술작품들에 관한 구체적, 실증적 연구에 입각해 문화혼성기의 한국현대미술을 역사적으로 진술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는 빈약한 작품 수와 국전 내부의 복잡한 맥락 소개가 부재한 상태로 인해 아쉽게도 잘 전달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국전의 로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현대미술 연구의 미래

그동안 국전은 관전이 시대착오적인 구습이라는 근본적인 비판에서부터 심사 및 운영에서의 시비와 잡음, 제도개편 과정에 영향을 미친 기성/신진 세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진행되다가 결국엔 폐기되면서 다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국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 사유이기도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원인은 앞서 지적했듯이 도록과 같은 실물 자료에 접근해 개별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전이 제1회 개최부터 1981년 30회로 막을 내리기까지 30여 년간 해방 이후 한국현대미술 전개와 생성에 사실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대한 변화를 초래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기존의 분야별 연구를 통해서도 공공연하게 입증되었고, 최근에는 한국근현대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더불어 연구자들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관전을 비롯한 한국근현대미술의 양상을 돌아보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한국근대미술과 1990년대 이후 동시대미술 사이를 점유하며 한국현대미술의 실질적인 몸통 역할을 수행한 국전에 관한 기본 데이터는 한국미술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원자료인 셈이다.

이러한 원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경우,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국전 회차의 출품작 제목 분석을 통해 작품 제목의 양상을 다뤄볼 수 있는가 하면, 주요 출품 및 수상 작가의 작품 경향과 흐름, 나아가 국전 출품 외 경향과도 비교 분석해 개별 작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단체에 속한 여러 작가들을 조사하거나 특정 시기 대표 작가들의 국전 출품작 양식과 해외 미술전에 출품한 작품 등을 비교해 보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단체에 속한 작가들 간의 개별성과 연관성, 특정 주제와 양식의 전개, 시대적 트렌드 등의 연구도 가능하다.

즉,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연구자들이 자료 검토와 확보에 쓰는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극적으로 단축시켜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색 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 방법을 혁신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프랑스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 1924~1989)에게 정보는 범주횡단적(transcategorical) 개념으로,(Simondon, 2014) 순수한 우연과 절대적 규칙성 사이의 중간 길에 놓여 있기에,(Simondon, 2011) 항상성 유지가 아닌, 변화와 차이발생에 기여한다. 또한 김재희의 「시몽동의 정보철학: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2020)에 따르면 정보는 이미 개체화된 존재자들 사이의 교환이면서 동시에 보다 상위의 질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화를 촉발하며 증폭하는 변환 역량이다. 한국현대미술을 다시, 세밀하게 기술하기 위해 국전의 DB구축과 활용이 절실한 이유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DB구축과 활용을 통한 한국현대미술 재구성의 가능성

이민수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2024. 8. 10.

I. 국전이 제공하는 한국현대미술 로데이터

- 1949년 11월 15일, 국립미술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막

“금번 전람회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처음 열리는
성전인 만큼 전 문화인과 예술인은 자신의 전 역량을
다하여 국전을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술은
다른 예술부문보다 대한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제일 용의한 부면인 만큼 미술가 제위는 새로운 각오
와 긍지를 가지고 이 기회에 분발해주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안호상 문교부장관 답화 내용 발췌, 『동아일보』 1949.10.19. 2면

『동아일보』 1949.07.14. 2면



入選作二百十二點中特選이十三點

[illegible]

미술전람회 장어나선이(李)
대통령과(左便)개막첫날의
비교적한산한회장(右便)



『조선일보』 1949.11.22. 2면

I. 국전이 제공하는 한국현대미술 로데이터

- 총 30회기 동안 국전 부문의 폐지와 신설,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제도의 변화
 - 수상작품의 경향이나 연도별 주요 경향과 변화
 - 수상작가의 출신 학교나 심사위원과의 학맥 및 사승 관계
- 당시 미술계 상황과 이해관계를 반영
-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전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가 한국현대미술을 이루는 로데이터(Raw data)로 기능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II. 기존 국전 연구의 성과와 한계

- 국전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 국전 아카데미즘을 부문에 한정하여 연구

“요컨대 국전의 장르와 양식은 무척 다양하여, 윤곽을 종잡을 수 없고, 매년 수상작의 양식적 편차도 커서, 과연 국전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관건”*

- 국전 서양화부 개별 작품의 경향을 분류하고 수치화해 통계분석 진행

→ 국전이 보수적인 사실적 화풍의 거점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개최 초기부터 반(半)추상 혹은 추상 화풍이 일정 비율을 차지했고, 1960년대 이후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했음을 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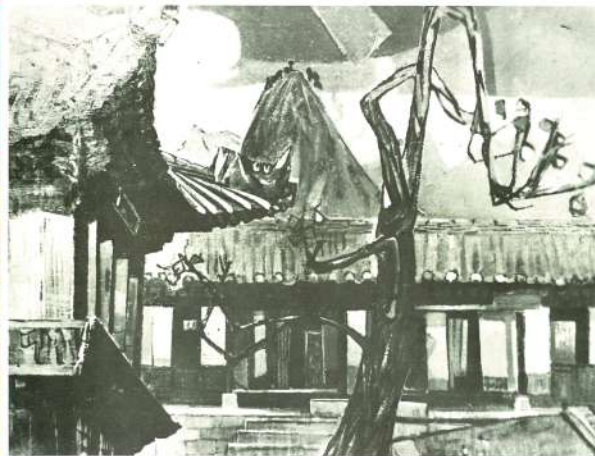
* 권영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한국 아카데미즘 형성에 끼친 영향』(2017)

** 정혜경, 『현대 한국 서양화 사조 연구 - 국전 화풍을 중심으로』(2015)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류경채, <페림지근방>1949, 제1회 국전 대통령상



이준, <만주>1953, 제2회 국전 대통령상

- * 제1회 국전 서양화부 심사위원: 이종우, 도상봉, 장발, 이인성, 이병규, 김환기, 배운성
- * 제2회 국전 서양화부 심사위원: 이종우, 이마동, 장발, 김인승, 도상봉, 김환기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박상옥, <한일(閑日) (二)>1954, 제3회 국전 대통령상

문학진, <F 건물의 중앙>1954, 제3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 * 제3회 국전 서양화부 심사위원: 이종우, 도상봉, 장발, 이마동, 김인승, 박영선, 김환기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임직순, <화실>1956, 제5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임직순, <좌상>1957, 제6회 국전 대통령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장리석, <그들의 노인>1958, 제7회 국전 대통령상



문학진, <자전차에 부딪친 운전사>1958, 제7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이의주, <온실의 여인>1960, 제9회 국전 대통령상



강대운, <푸른언덕>1960, 제9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제9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입선명단									
전	입	선	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입사위원회 입선 명단									
제 1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2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3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4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5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6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심사위원 명단 26명 (가나다순)									
제 1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2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3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4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5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6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조각작가 명단 (66명)									
제 1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2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3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4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5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제 6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임원명단,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도록, 1960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이의주, <온실의 여인>1960, 제9회 국전 대통령상



강대운, <푸른언덕>1960, 제9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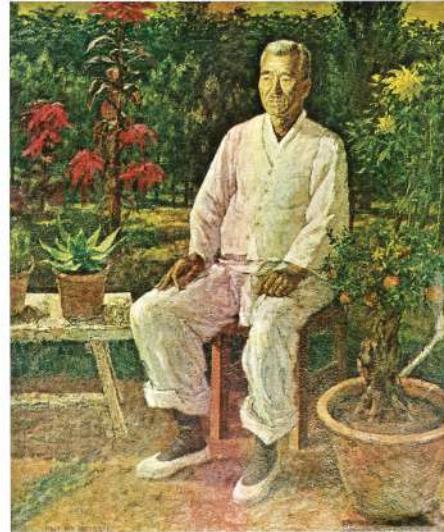


이병규, <독서>, 1960, 캔버스에 유채, 145.5x106cm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0회(1949~1961) 서양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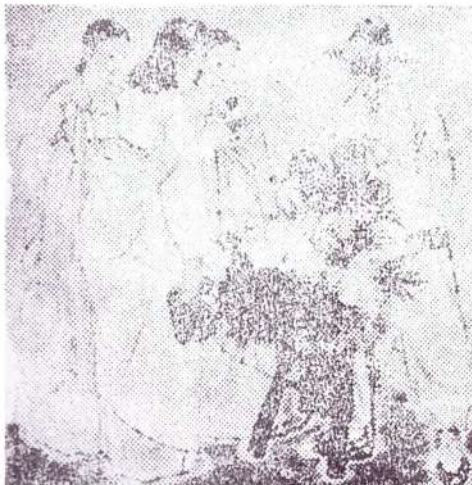


김형대, <환원 (B)>1961, 제10회 국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



김창락, <사양(斜陽)>1962, 제11회 국전 대통령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9회(1949~1970) 동양화부



서세옥, <꽃장수>1949, 제1회 국전 국무총리상



박노수, <청상부(淸想賦)>1953, 제2회 국전 국무총리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9회(1949~1970) 동양화부



서세옥, <운월(暈月)의 장(章)> 1954, 제3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박노수, <선소운(仙簫韻)> 1955, 제4회 국전 대통령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9회(1949~1970) 동양화부



조방원, <효(曉)> 1955, 제4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박래현, <노점> 1956, 제5회 국전 대통령상



안상철, <전(田)> 1956, 제5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9회(1949~1970) 동양화부



이종상, <작업>1962, 제11회 국전 내각수반상



오탈학, <군우>1961, 제10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안동숙, <대망>1962, 제11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 국전 수상작 경향: 제1회~19회(1949~1970) 동양화부



원문자, <칠면조>1970, 구상, 제19회 국전 국회의장상



이규선, <여래>1970, 비구상, 제19회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



서세욱, <운한>1970, 비구상, 제19회 국전 초대작가상

II. 기존 국전 연구의 성과와 한계

- 동양화와 조각, 사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교 분석을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한 연구자가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개별 작가들과 예술작품들에 관한 구체적, 실증적 연구와 국전 내부의 복잡한 맥락 파악의 어려움

III. 국전의 로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현대미술 연구의 미래

- 해방 이후부터 30회까지 운영된 국전은 한국현대미술 전개와 생성에 양적, 질적으로 지대한 변화를 초래
- 한국근현대미술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과 더불어 연구자들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관전을 비롯, 한국근현대미술의 양상을 돌아보는 논의가 제기되는 추세
- 한국근대미술과 1990년대 이후 동시대미술 사이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실질적인 몸통 역할을 한 국전의 기본 데이터는 한국미술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원자료

III. 국전의 로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현대미술 연구의 미래

- 정보는 “범주횡단적(transcategorical)”개념으로,* “순수한 우연과 절대적 규칙성 사이의 중간 길”에 놓여 있기에,** 항상성 유지가 아닌, 변화와 차이 발생에 기여

- “정보는 이미 개체화된 존재자들 사이의 교환이면서 동시에 보다 상위의 질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화를 촉발하며 증폭하는 변환 역량이다.”***

→ 국전 DB구축과 활용을 통해 정밀하고 풍부한 한국현대미술의 이해와 서술 가능

* Gilbert Simondon, “La mentalité technique”(2014)

** Gilbert Simondon,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1958), 김재희 옮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2011)

*** 김재희, 『시뮬동의 정보철학: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2020)

감사합니다

1935년 조선미술전람회, 텍스트로 가상하기 : 아카이브를 활용한 메타버스 전시 가능성

황빛나
(아트시넵스 총괄디렉터)

본 발표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2023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모델링 사업-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을 통해 수집된 기사 텍스트 자료 16,437건과 이미지 자료 15,370건을 토대로 향후 ‘한국 관설미술 공모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아바타를 제작하고, 가상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객체(자료)를 찾아 상호작용하는 연구자 외 창작자와 일반 대중을 포괄한 아카이브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메타버스 내 가상 전시를 통해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 전시관은 조선미술전람회 전체 자료의 건수와 제도적인 변화가 큰 한 해를 표본으로 하여 구축하였으며를 고려하여, 서양화가 및 조각가들의 조선미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처음 무감사 추대 출품 제도가 생겨나고, 조소(彫塑)와 공예부가 3부로 통합 실시된, 1935년 제14회 전람회 자료 600여 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가상 전시관은 자료관과 작품관 두 개로 구성하되 홈페이지와 동시에 구축하여 사용자가 가상 전시관과 외부의 조선미전 컬렉션 데이터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숫자로 보는 전시-가상의 전시(2개 관)-인물로 보는 전시-이슈로 보는 전시’라는 4개 주제와 관련한 노선 내 기록물 데이터의 정보까지 확장하여 접근, 체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두 개의 가상 전시관은 “C작가의 조선미술전람회 입상기”라는 소주제 하에 근대기 미술가가 ‘미술가의 등용문’으로 인식되었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을 위한 작품 준비부터 출품 신청 및 입선, 이후 현장 관람에 이르는 과정을 기사자료를 토대로 복원한 ‘자료관’과 특선 및 추대 작가의 작품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작품관’으로 나누어 메타버스에 구현했다.

가상 전시관의 구현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콘텐츠의 관리와 대중 접근이 용이한 노션(Notion, 프로젝트 관리 및 기록 소프트웨어)과 이미지와 음성 생성 AI 프로그램인 D-ID, 그리고 메타버스 솔루션인 360xcon을 연계하여, 텍스트 자료의 시각화 뿐 아니라 기사 자료를 음성화한 음원을 이미지에 포함시켜 시존 메타버스 전시가 시각물 위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완하고자 시도했다.

현재 다양한 AI 관련 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사용자의 성격이 전통적인 연구자, 창작자, 사용자라는 분절적 관계에서 벗어나 복합화,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산재 분포해 있는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록물과 디지털 콘텐츠들을 집적한 디지털 아카이브 역시 기존의 텍스트화된 기록물을 내려 받고, 열람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방식을 넘어, 데이터 큐레이션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이용자 성격 및 유형별로 관련 자료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탐색, 활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작 자원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시도된 조선미술전람회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전시 서비스는 위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도로써 의미를 지닌다.

관설미술공모전 DB

朝鮮美術展覽會

제14회

1935

**TEXT
TO META**

2024.8.10.
아르코예술기록원
발표자 황빛나(아트시냅스)



Data - Information

프로젝트에 대하여

데이터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No longer relevant' 데이터 소생시키기?
고고-아트데이터

observer
사용자 객체

연구자

참작자

작주의 문자데이터
→ 시공감각화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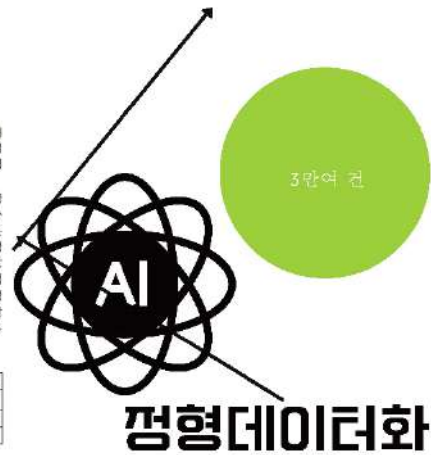
→

프로젝트에 대하여

출발

활용과 공유의 의미-지향성

비정형데이터화



⁹⁸ 『朝鮮南書院叢書』に記して、『朝鮮南書院叢書』5編(1932: 朝鮮南書院, 1932), p.114, 구보리의 내한시기는 그가 조선남학원도록에 수록한 사견들의 연도가 대부분 정확한 점을 고려할 때, 내한시기를 1909년 11월 16일로 회고한 것에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후 본 글에서 구보리의 내한시기를 1909년으로 설정하고 이 글을 진행시켰음을 밝혀둔다.

⁹⁹ 구보리 묘소의 신문 및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직제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하므로, 간략히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조선총독부의 문무고등관의 직제는 원직하는 총독과 정무총감이 각각 8,000원과 6,000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하는 등급에 따라 1~2등급은 직임관으로, 3등 이하 8등급은 속임관으로 분류되었다. 1~2등 직임관에는 각부 국장, 기사, 경성제국대학 총장과 교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등급에 따라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연봉을 받았다. 주임관에는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세관장이 포함되었고, 역시 등급에 따라 대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연봉을 받았다. 구보리 묘소는 9등 주임관으로 대한이었기 때문에, 약 1,200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볼 때 교육연료가 아닌 중급관료로 내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관제 및 직급별 연봉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조선총독부 관제 목록』 참조.

¹⁰⁰ 조선총독부 관보 1913년 1월 15일호에 확인되는 구보리 대인의 직급과 봉급기록은 아래와 같다.

조선시기	이름	소속	부서	관직	관등/급훈
1913	久保田直行	조선총독부특수기관 임시보지조사국	총무과	원고	9등
1914	久保田直行	조선총독부특수기관 임시보지조사국	총무과	원고	9등
1915	久保田直行	조선총독부특수기관 임시보지조사국	총무과	원고	8등

219



접근 방법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현

포괄적
생성

진짜같은
가짜 만들기

디지털 트윈
딥페이크
메타휴먼
3d화

향작화?

연구자가 서툰 기술로 만드는
상상적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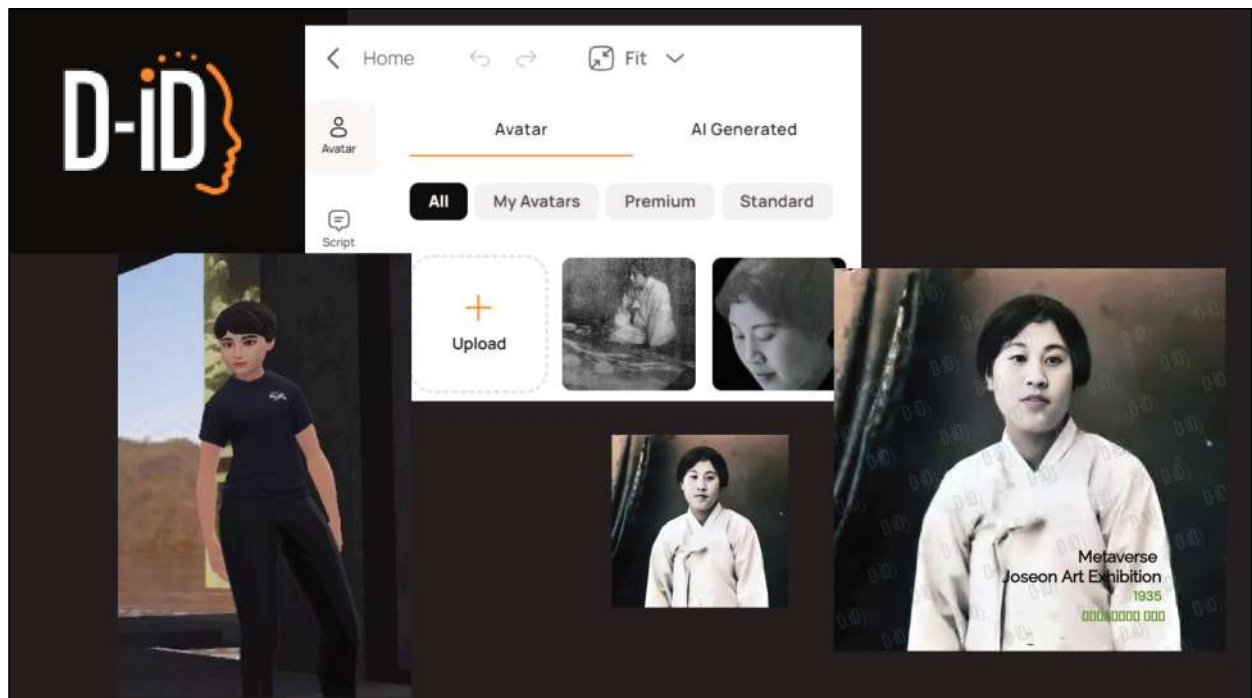
메타 자료관

연결로 충분한가?
온톨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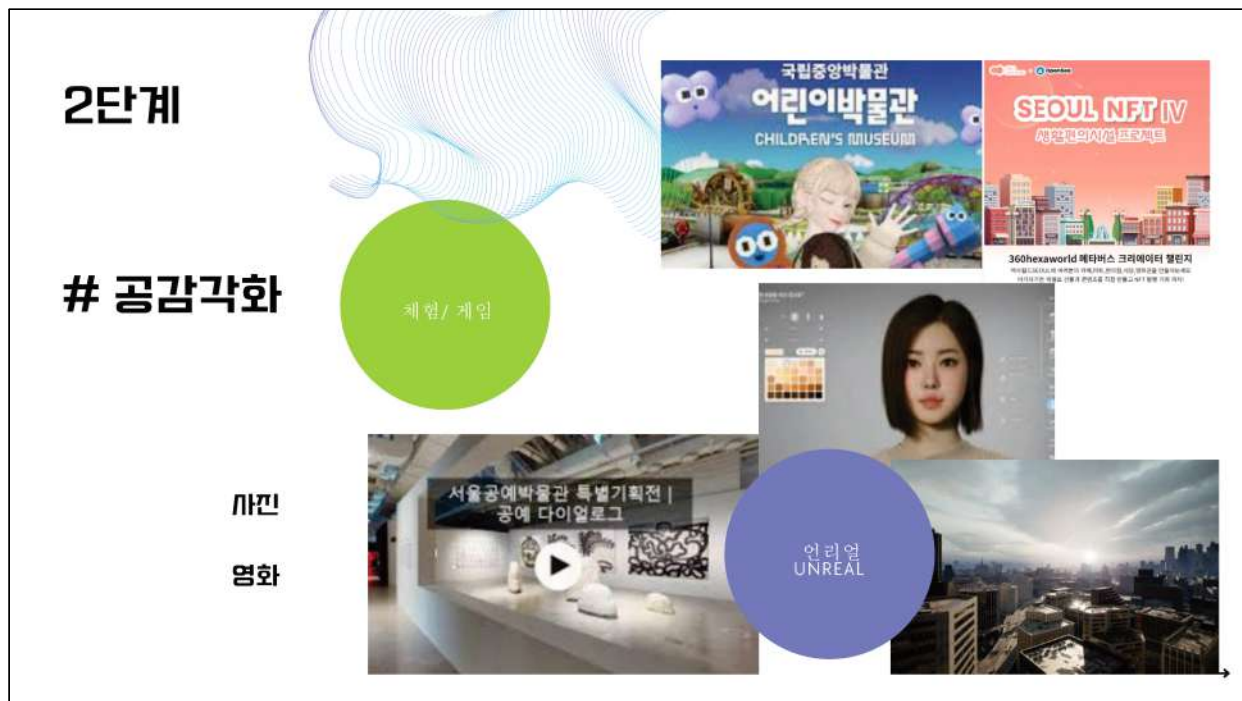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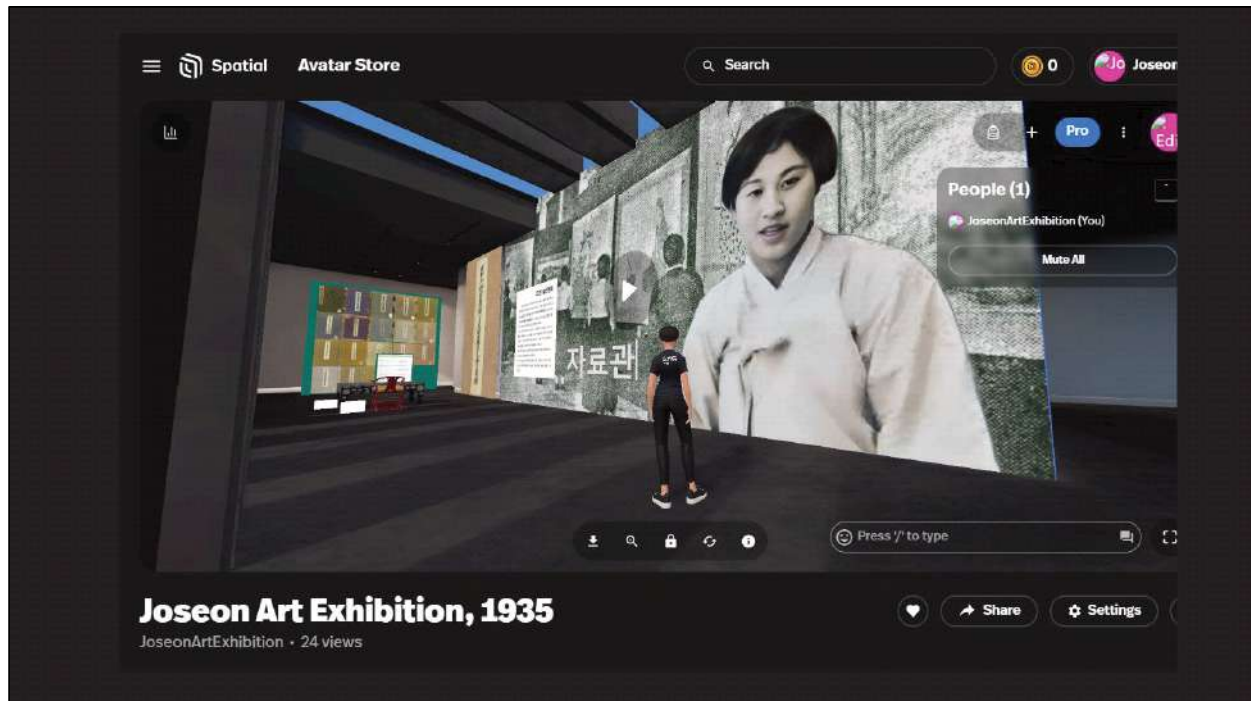
1단계

딥페이크
기술로
작가 모환하기









3단계 # 분화/재귀

• 고전적 방식

(기록물로서의 원전자료의 가상공간에서 서비스 / 공유)

+

• 비정형화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전시/ 장소/ 사건 재해석+가공)

360XCON



AI 도슨트, 챗봇 기능 도입
-이용자 관리자 간의 피드백 활성화
-교육적 효과 기대

(Spatial)



-3D데이터, 영상, 음원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사진, 도면 데이터의 공감각화 구현 가능
-시각예술 외 장르 적용 가능



미술사 연구자
아트 아카이브 내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학술논문/텍스트 생산

+

고전적 '쓰기'의 도구로써
AI 및 그래픽 툴 사용

=>텍스트 내 문자 데이터를 기초로 한 텍스트의 공감각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개입-생산 행위 가능

식민주의 밖에서 기술적 상상력을 심화시키고, 각 문화와 그 문화의 기술적 발전 사이의 특정한 역사적 관계에 뿌리를 둔 지역화된 이해를 창출 필요

따라서 오늘날 기술 시스템 속에 객체를 이루는 데이터 또한 오히려 코스모테크닉으로서의 역사성적과 국지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기술로서의 예술/미술사라는 측면에서도 20세기 조선미술전람회로부터 해방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이후 베니스비엔날레와 현재 국내 미술현장의 데이터를 잇는 예술기록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구축은 21세기에 유효한 '창작의 질료'를 마련하는 기초적인 작업

우리는 기술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작업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새로운 조건입니다.

- 육후이(許煥, Yuk Hui) : "We are living in a gigantic technological system" (바르셀로나 CCCB Lab 2024. 4. 16.)

| 3부 |

관설 미술공모전 DB구축의 기술적 방향

사회 : 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장)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 근현대 미술사와 문화사 연구의 보고(寶庫), ‘조선미전’과 ‘국전’

조선미술전람회(조선미전)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필요한 핵심 정보원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미전(1922-1944, 23회),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시작되어 1981년 막을 내린 국전(1949-1981, 30회)은 관설 공모전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6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성격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조선미전은 1919년 삼일 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한 방편으로 기획된 것으로 조선미전이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보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미전의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일제의 문화통치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목수현 2011). 근대 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문화예술 제도를 표방하며 해방 이후 설립된 국전은 일반 국민들이 미술을 접할 수 있었던 주요 무대로서 대중의 문화 향유와 교육의 장이었다(권영진 2018). 따라서 이러한 공모전 관련 자료는 비단 미술사 연구뿐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공모전 정보

그러나 현재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영인본 책자로 존재하는 도록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거나 당시 신문기사나 관보, 팸플릿과 같이 공식 출판 유통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회색 자료(gray literature)를 찾아 각개 약진해야 한다. 특히 조선미전 자료는 일본어(때로 메이지 시대 일본어)로 되어 있고, 국전의 경우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초기 5회는 도록이 발간되지 않아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근현대 미술사 연구의 핵심 원천 정보인 관설 공모전 자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다양한 정보자료 포괄] 첫째, 공모전의 매회별 공모 부문, 수상작, 수상 작가 등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도록, 팸플릿 등 공모전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관련 신문 기사, 관보, 비평, 연구자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해야 한다.

[정보개체별 충실한 도큐멘테이션] 둘째, 아카이브에서는 공모전 회차별, 인물별, 작품별로 충실한 도큐멘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한다. 공모전 회차별 정보(공모부문, 심사위원, 작품, 수상 작가 등)를 집합적으로 기술하고, 인물 개체(작가, 심사위원), 작품 개체, 자료 개체 등과 연

결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모전, 작품, 인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축적되도록 한다. 가령, 공모전 회차에 따라 동일인의 역할(심사위원, 수상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물별 개체(레코드)에 모든 정보가 함께 모이도록 한다.

[디지털 원문의 제공] 셋째, 메타데이터만 존재하는 개체(전람회, 인물, 작품)와 달리 메타데이터와 데이터(원문)가 함께 존재하는 개체(도록, 관보, 신문기사 등)의 경우, 디지털화 원문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가독성과 이용가능성]

넷째, 일본어로 기술된 자료의 경우, 제목 등의 메타데이터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한편 인명, 작품명에 대한 통제(authority control)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상이한 이름(아호, 창씨개명, 일본인명 등)과 동명이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 작품에 대한 이형 명칭이 있다면 이를 안내해야 한다.

[정확한 원천자료 안내]

다섯째, 해당 공모전 과정에서 생산된 원천자료를 존중해야 한다. 작품 관련 정보는 작품 감정에 필요한 provenance(출처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정확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모전 과정에서 생산된 도록이나 팸플릿 상의 작품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한다. 추가로 수집된 유사 자료(후속 전시의 도록이나 팸플릿 상의 자료)의 이미지가 양질이라 할지라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맺음말

1995년에 문을 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광주비엔날레가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동시대 미술을 위한 아카이브는 기존의 정적 아카이브와는 차원이 다른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필요로 하며 작품 보존 상태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다. 우선 공연예술이나 뉴미디어아트 아카이빙 기법을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설 공모전 아카이브가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면, 동시대 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 방향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eol@pusan.ac.kr

발표순서

- 관설 미술공모전 :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관설 미술공모전 기록화의 필요성
-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 방향
 1. 공모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
 2. 다양한 출처와 매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록화
 3. 수상작품 및 작가에 대한 지속적 기록화
 4.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해 국제표준 적용
 5. 이용 편의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고려
- 맺음말 -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로의 확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第五回朝鮮美術展覽會圖錄
總發行所 朝鮮美術展覽會
總發行所 朝鮮美術展覽會
總發行所 朝鮮美術展覽會

總發行所 朝鮮美術展覽會
總發行所 朝鮮美術展覽會
總發行所 朝鮮美術展覽會

관설 미술공모전

관설 미술공모전

- 관 주도의 대규모 미술 공모전
-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1981, 30회)

조선미술전람회 (조선 미전)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개최
- 개최의도 (이중희 2005, 39-41)
 - 1919년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한 방편
 -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미술가들의 작품활동 신장 (일본인 출품 비율이 60% 이상)
 - 일본미술로의 동화 : 심사위원 대부분이 일본인
- 연구사적 의의 (목수현 2011; 이중희 2005)
 - 봉건시기 미술에서 근대 미술로 변화하는 시기에 개최된 전람회로서 한국 근대 미술의 태동을 확인할 수 있음(봉건적 미의식→ 근대 미의식으로 교체되는 현상)
 - 한일 양국 작가가 공동 참가한 복합 미술 발표장으로서 양국간 전통과 미의식의 혼용과 교차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 일제강점기 문화정책의 수립과 그 전파, 수용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한국근현대미술연구 : 식민지기 조선미술전람회로 보는 이문화지배와 문화표상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 2005, 296쪽)

관설 미술공모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

- 1949년 문교부 고시 제1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공포
- 정부수립 이후 근대 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문화예술 제도를 표방하며 시작
 - 1949년 1회, 1950-52년 전쟁으로 중단, 1953년 재개, 1981년 민간이양으로 폐지(총 30회)
- 제도적 의의(권영진 2018)
 - 30여 년간 한국 미술을 발전시키고 정착시킨 대표적 제도 (연인원 4만4천명에 달하는 미술인 참여)
 - 격변기 한국 미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작품 발표의 장이자 등용문
 - 신인작가들이 미술가로 등단할 수 있는 유일한 등용문(공모)
 - 기성작가들이 작품을 발표, 전시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무대(대규모 연례 전시회)
 - 일반 국민들이 미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 관람과 교육의 장
- 연구사적 의의
 - 국가주의 미술정책에 충실한, 실패한 제도였는가?
 - 정부수립이후 1981년까지 민족미술의 수립과 현대미술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는 주무대로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전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중요

관설 미술공모전 기록화(documentation)의 필요성

공모전 기록의 가치

- 한국 근현대 미술사 및 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정보자원**
 - 공모전 부문, 수상작, 작가, 전시 정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태동과 흐름을 연구하는 데에 핵심 정보자원
 - 관보, 행정문서 등은 당시 문화예술 및 미술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적 증거
 - 관련 언론 기사, 비평 등을 통해 관 주도 미술의 확산, 작품, 작가에 대한 미술계 및 대중의 반응 등을 확인
-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통과 미술활동에 대한 **기억자원**
 - 정보자원을 넘어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통 및 작품활동의 기억자원
 - 사실 기반의 기억 자원이며, 한국 미술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
- 근현대 주요 미술작품의 감정을 지원하는 **진본 증거**
 - 작품의 프리비넌스(provenance) 정보
 - 작품의 출처, 전시, 소장이력 정보

관설 미술공모전 기록화(documentation)의 필요성

자료의 부재 혹은 망실

- 공모전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없거나 망실 상태. **“지금도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
- 도록이 남아있지 않은 전람회도 있어서 공모전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국전-1949년-1956년까지 초기 5회 도록이 발간되지 않음; 조선미전-20-23회 도록 부재
- 공모전 기록의 잔존 양태 파악 및 추가 수집 노력이 시급한 실정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공모전 자료

- 영인본 책자로 존재하는 도록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거나 신문기사, 팸플릿 등과 같이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찾아야 함. 소장처 다양.
- 조선미전이나 국전은 모두 국가 주도의 대규모 문화행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언론기사, 관보, 행정문서 등이 생산됨. 도록 외에 이러한 자료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조선미전은 1919년 삼일 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한 방편으로 기획된 것으로 조선미전이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보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미전의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일제의 문화통치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목수현 2011).

관설 미술공모전 기록화(documentation)의 필요성

자료활용의 어려움

- 자료 유형별(포스터, 전시인쇄물, 브로셔 등) 혹은 개별 작품별로 분류목록이 이루어진 경우(국립현대미술관) 공모전별 작품과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기 어려움
- 조선 미전 관련 관보, 신문기사 등은 일본어(때로 메이지시대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 있음
- 근현대미술사 연구의 핵심 원천 정보인 관설 공모전 자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색도구(research guides) 부재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의 기초 컬렉션

- 양대 <관전> 아카이브 컬렉션은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공모전 자료를 축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연계, 축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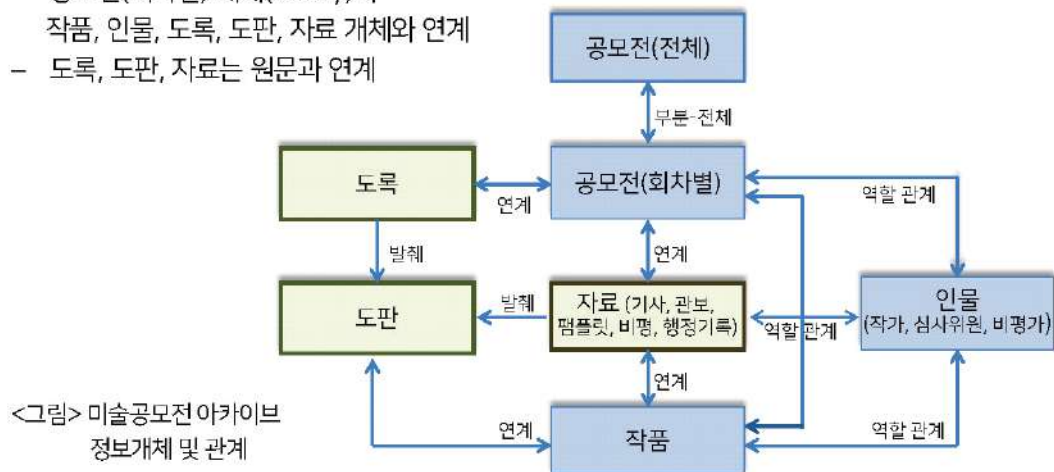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 방향

1. 공모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
2. 다양한 출처와 매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록화
3. 수상작품 및 작가에 대한 지속적 기록화
4.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해 국제표준 적용
5. 이용 편의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고려

1. 공모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

정보개체 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기록화 실시

- 공모전 정보를 구축한 후 작품, 인물(작가, 심사위원)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기록을 연계
- 공모전(회차별) 개체(entity)와 작품, 인물, 도록, 도판, 자료 개체와 연계
- 도록, 도판, 자료는 원문과 연계



2. 다양한 출처와 매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록화

공모전의 과정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출처와 매체/형식의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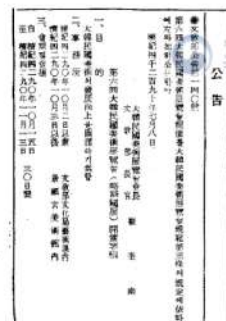
- 공모전 관련 법률과 규정, 심사과정, 수상작품, 수상작가, 전시회 진행 기록, 관련 언론보도, 비평 등 포함
- 기록화 영역 : 관련 법규, 과정(기획, 심사), 결과/전시(수상작품과 작가), 평가 및 비평
- 수집 기록 유형
 - 도록과 도판 : 수상작품 정보 및 작품 이미지 수록
 - 관련 법률과 규정, 관보
 - 행정문서 : 심사과정, 심사위원 등에 관한 자료(국가기록원 등 소장)
 - 국전 관련 145철 2,392건(사진필름류 2,179건)
 -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조선총독부 생산 문서
 - 전시회 자료 : 상장, 우대권, 접수증, 포스터, 팸플릿, 입장권, 기타 박물
 - 신문, 잡지 : 보도기사, 보도사진, 홍보/광고, 비평 등

진정서에대한회신

생산기관 :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생산연도 : 1963년

관리번호 : BA0136715



3. 수상작품 및 작가에 대한 지속적 기록화

작품 기록화

- '수상작품'과 '수상작가'는 공모전을 넘어 한국 근현대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므로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화 필요
- 특히 작품 도판 자료의 경우, 공모전 도록 뿐 아니라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음
 - 도록, 엽서본, 팸플릿, 신문/잡지, 유리건판 등
 - 도록이 없는 전람회 - 조선 미전 20회-23회, 국전 1949년-56년(초기 5회)
 - 도판의 출처, 해당 도판에 수록된 작품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 공모전 이후 작품별 전시 이력, 소장처 이력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추가
- 작품명 변경 및 이형 작품명의 통제 필요 (→ [작품별 전거레코드](#)) (cf. 작품 인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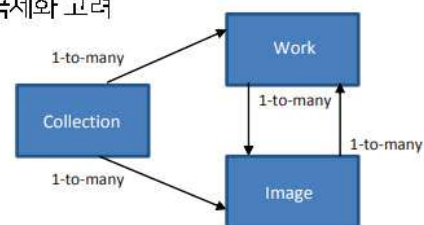
작가 기록화

- 국전 참가작가(수상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와 조선미전 한국작가들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요 작가군을 형성 → 한국 근현대 작가 DB의 기초 자료
- 공모전 회차에 따라 동일인의 역할(심사위원, 수상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물 개체(전거레코드)에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보를 기술하되, 역할 관계 기술
- 낙선작가전 참가작 및 작가에 대한 기록화도 연계하여 실시
- 작가별 정보 구축 및 인명 통제(일본인명, 동명이인, 이명동일인 등)(→ [인물별 전거레코드](#))

4.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해 국제표준 적용

메타데이터 국제표준 사용

-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지속적 축적, 타 기관 소장물과의 연계 검색 등을 고려
- 충실한 기술 및 국제화
 - 정보개체에 적합한 충실한 기술 및 아카이브의 국제화 고려
- 예)
 - 자료 : 더블링크어
 - 작품 : VRA CORE
 - 이미지와 이미지가 표현하는 작품 기술을 위해 개발된 메타데이터 표준
 - 인물 : ISAAR(CPF)
 - 창작자 고유번호 - ISNI 번호
 - 기록컬렉션 (finding aids) : ISAD(G)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타 기관의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과의 연계 검색 모색



<그림>VRA Core data model

5. 이용 편의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고려

지적, 물리적 접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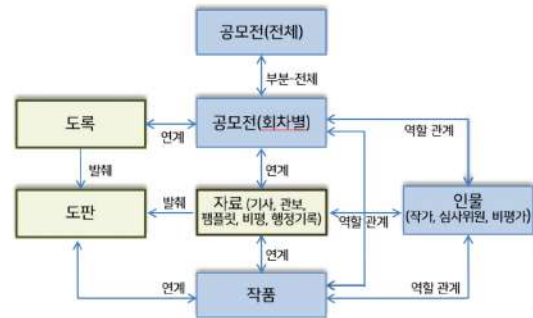
-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필요
-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도록 제공을 넘어 작품 별 도판, 관련 기사, 작가 등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 지적 접근성 강화 - 일본어 번역, 용어 통제, 목록검색 및 브라우징 서비스
- 물리적 접근성 강화 - 디지털 원문의 제공

디지털 원문의 제공

- 메타데이터만 존재하는 개체(공모전, 인물, 작품)와 달리 데이터(원문)가 함께 존재하는 개체(자료, 도판, 도록)의 경우, 디지털화 원문을 제공

자료 번역 및 용어 통제

- 번역 서비스 - 조선미전 관보, 언론기사 등
- 용어통제 : 구식용어, 전문용어를 위한 시소러스 구축



5. 이용 편의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고려

이용자와 소통하는 아카이브

- '살아있는' 아카이브 활동의 토대
- 기록과 자료의 갱신, 이용자 참여 채널 마련, 아카이브 아트 지원
- 오래된 수상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콘텐츠 제공

예) 풀리처상 아카이브 - 수상 작품과 관련된 아카이브 콘텐츠 서비스

- 풀리처위원회 [Stories] **From the Pulitzer files**
- Edith Wharton's 'The Age of Innocence' Celebrates its 100th Anniversary
(최초의 여성 풀리처 소설부문 수상자 에디스 와튼 이야기)
 - 1921년 풀리처상 심사위원단이 와튼의 '순수의 시대'를 풀리처상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힌 존 L. 히튼의 메모
 - 뉴 리퍼블릭 기사 기고문 - "와튼이 산문 분야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지만 심사위원단은 다른 책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대중은 알 권리가 있다" 등
 - <https://www.pulitzer.org/article/edith-whartons-age-innocence-celebrates-its-100th-anniversary>
-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 관련 수상 작품들 - 개학기에 맞추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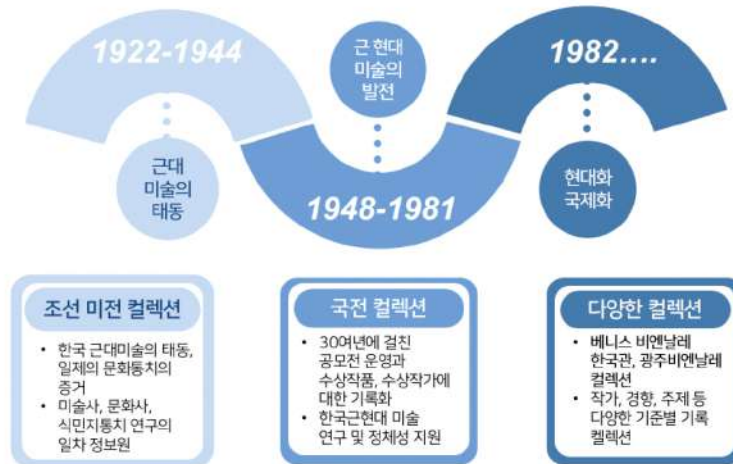
From the Pulitzer files



맺음말 - 한국 근현대 미술아카이브로 확장

한국 근현대 미술아카이브 플랫폼의 구축의 토대

- <조선미전>과 <국전> 기록 컬렉션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통과 정체성 관련 기초 정보원
- 양 공모전에 대한 1차 기록화를 토대로 관련 기록과 자료를 확장 발굴하여 연계
- 국전 이후 전개된 다양한 한국 미술작품 활동 자료를 순차적으로 기록화하여 연계
- 분산 소장된 자료에 대한 작품별, 작가별 통합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 제공



설문 원(2024. 8)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방향

15

맺음말 - 한국 근현대 미술아카이브로 확장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 20년대-8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미술의 흐름, 작품과 작가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설 공모전 기록화와 함께 80년대 이후 50년간 혁신의 미술사도 함께 기록화할 필요
- 동시대 미술작품 기록화의 시급성
- 과거에 아트 아키비스트들이 '기록과 자료 망실'과의 싸움을 벌였다면, 현대 미술의 경우 '작품 망실'과의 투쟁 필요
 - 동시대 미술을 위한 아카이브는 기존의 정적 아카이브와는 차원이 다른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필요로 하며 작품 보존 상태에 대한 진단 시급
 - 1995년에 문을 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 동시대 미술 아카이빙의 현단계 진단 필요
 - 작가들의 작품 기록화 지원과 교육

아트 아키비스트(art archivists)의 양성과 배치

- 결국은 사람이다
- 지난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군의 양성 필요

참고문헌 목수현. 2011. 조선미술전람회와 문명화의 선전(宣傳). 사회와 역사(89), 85-115
 이중희. 2005. 조선미전 설립과 그 결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pp.37-70
 권영진. 2018.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상 아카데미즘. 한국근현대미술사학(35), 147-174

설문 원(2024. 8)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방향

16



Q & A

seol@pusan.ac.kr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에서의 전거제어 및 시소러스 구축 방안

최영민
(부산현대미술관 기록연구사)

관설 미술공모전 DB 구축의 특징

우리나라의 관설 미술공모전은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1981), 《대한민국미술대전》(1982-)로 이어져 오고 있다. 관설 미술공모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있어 The Academy Awards나 The Pulitzer Prizes와 같은 여느 수상 제도와 특별히 달라질 필요는 없다. 미술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타 분야와는 다른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가감될 수 있어도 엔티티 관계와 스키마 연결, 메타데이터 구조 등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소실되어 많지 않으면서 산발적인 출처의 아카이브 수집이 우선적인 현안이며 디지털화, 언어 문제, 콘텐츠 가공 등의 향후 서비스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집’과 ‘서비스’ 사이에 인명, 작품명 등에 있어 동일 대상의 다양한 명칭 또는 같은 명칭의 다른 대상을 식별하는 전거제어, 유형(부문, 장르 등)이나 기술(description)에서 용어 통제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수집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접근, 콘텐츠화 등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한다.

전거 제어의 개념, 필요성과 구축 방안

전거 제어는 인물, 단체, 작품 등의 명칭을 일관되게 관리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검색의 정확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작가 ‘홍길동’이 ‘길동 홍’ 또는 일본어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경우, 전거 제어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이름을 하나의 표준화된 이름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ISAAR(CPF)와 EAC-CPF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전거 레코드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시소러스의 개념, 필요성과 어휘 통제 범위

시소러스는 용어를 표현하는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다양한 관계(동의어, 하위어 등)를 설정하여 데이터의 검색 및 분석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다. 어휘 통제 범위는 미술사적 용어, 다국어 지원 등을 포함해 ISO 25964와 같은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시소러스는 데이터베이스 내 용어 간 일관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며 연구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설 미술공모전 DB의 전거 레코드와 시소러스 데이터 구축 예시

관설 미술공모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거 레코드와 시소러스 데이터 구축 예시를 제공한다.

결론 및 제언

전거 제어와 시소러스 구축은 관설 미술공모전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교육 자료 개발, 콘텐츠 제작, 브라우징 검색 등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술사 연구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전거 제어와 시소러스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연구자와 대중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깊이 있는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에서의 전거제어 및 시소러스 구축 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최영민 부산현대미술관 기록연구사
choismart@korea.kr

2024. 8. 10.(토)

목차

01 개요

02 관설 미술공모전 DB 특징과 도전 과제

03 전거제어

개념 및 중요성
구축 예시 및 사례

04 시소러스

개념 및 중요성
구축 예시 및 사례

05 전거제어와 시소러스 구축의 필요성

06 결론 및 제언

개요

* 대상

관설 미술공모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모델링(안)

* 논의 범위

-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관련 기록물 중심
- 향후 확장성(국전, 대한민국미술대전) 고려
- 전거제어 및 시소러스의 일반적 이론, 문화예술유산관리의
보편성을 반영

관설 미술공모전 DB의 특징과 도전 과제

01. 다양한 출처

데이터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

출처 및 시기에 따라 기술, 표기 방식 및 언어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인명, 작품명
등을 통제하는 전거제어와 주제 관련
시소러스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02. 단계별 수집

향후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국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으로 단계별
자료 수집에 따라 다양한 시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표준을 준용한
메타데이터 적용 필요

03. 자료의 한정성

콘텐츠를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화가 시급하며, 연구용/교육용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 다각화 필요



전거제어

Authority Control

개념

'이름 名', 특히 고유명사(인명, 작품명, 전시명 등)의 모든 표현을 수집 후 대표 표현(전거형 : authority)과 상이한 표현(이형 : variant)을 선정 후, 수집된 용어들 간 관계를 설정해 통일된 접근점을 제공

이명 관리

동일 객체의 여러 명칭
- 호, 이칭, 별칭, 가명 등
- 표기 방법, 다국어 표기 등

동명이인 처리

다른 객체의 동일 명칭
- 한국은 동명이인 비율 높음
- 작품명(<무제>)의 딜레마)

정보 기능

맥락 정보에 통합적 접근 가능
관계 정보 제공

조선미술전람회
데이터 사례

전거제어 필요성

인명

加藤儉吉, 가등검길, 가토 쇼린, 松林, 松林人, 小林人, 小琳人

전시명

조선미술전람회, 朝鮮美術展覽會, 조선미술대전, 선전, 조선미전

작품명

지명



무종
□ 古地圖
1925 이전
□ 서양화
□ 일선
□ 일민운동



무종
□ 韓城景
1925 이전
□ 서양화
□ 일선
□ 일민운동



무종
□ 漢野景
1925 이전
□ 서양화
□ 일선
□ 일민운동

전거레코드 구축 방법

1

선거대상 구축 대상 설정

구축 대상의 범위
구축 참고자료

2

선거대상 용어 추출

수집 과정
선거 대상 용어 기준 등 필요

3

대표어(선거 표현) 설정

전문적 조사와 판단 필요
기준 및 지침 필요

4

영역별 기술

영역 결정 및 영역별 기술 요소
기술 지침 필요

수집, 등록, 기술 등 전단계에 걸쳐 필요한 과정

표준을 준수하여 일관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임

전거레코드 구축 예시

식별영역	
엔티티 유형	인물
선거명	石黒藏保
대동명	석흑의보 이시구로 요시카즈 Ishiguro Yoshikazu
이명	宜雨 의보
인물 구분	작가 교육자
기술영역	
출생일	1890-00-00
사망일	1977-00-00
생물구분	사망
국적	일본
출생지	일본
주요 활동지	충/川
주요 약력	○ 학력 1917 동경미술학교 졸업 ○ 경력 1939 숙명여자전문학교 강사 ○ 주요 전시 1933 <청구회 창립회원전>, 미쓰코시 백화점, 서울, 한국
성별	남

관계영역	
관련 인물	김찬영 토다 카즈오 사토 쿠니오 야마구치 오사오 도상봉 공진형 이마동
관련 단체	청구회 숙명여자대학교 용산중학교
관련 사건	
관련 분야	동양화
관련 주제	
통제 영역	
규칙 및 협약	ISAA(CPF) (사)한국미술연구소 선거 레코드 작성 매뉴얼
상태	초안
상세도	최소
생성 날짜	2024. 7. 26.
언어와 문자	국문
정보원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최열, 열화당, 1998) 『청구회전을 보고(1)-(4)』 (구본웅, 『동아일보』, 1933. 10. 31~11. 5)
하이퍼링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1601
비고	

전거레코드 구축 예시

Research

Research Portal > Topic Union List of Artist Names > Full Record Display

Union List of Artist Names® Online Full Record Display

Click the icon to view the hierarchy.

Search: **View: JSON, RSCALD, RSC NNT, RSC N-Trees**

ID: 500039701

Page Link: <http://visual.getty.edu/page/view/500039701>

Kahlo, Frida (Mexican painter; 1907-1954)

Note: Mexican fantasy painter known as much for her turbulent personal life as her feminist self-portraits. Kahlo married to poet in 1929, after recovering from a devastating bus accident that left her unable to bear children. The tragedy was often the subject of her paintings and was an integral part of her personal imagery. Her work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a kind of exorcism by which she projected her anguish on to another Frida, in order to free herself from pain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 a hold of reality. Small in scale, primitive in style, and bold in color, the artist is sometimes shown as an animal, such as a bear, which have lead artists and critics alike to label her work Surrealist. The artist eschewed this, maintaining that she painted images from her own life, not dreams. Also the subject of several works was her tumultuous marriage to artist Diego Rivera. One portrait shows the artist as a tiny figure in traditional Mexican dress, dwarfed in size by the large, brooding Rivera. In 1953, Kahlo's leg was amputated at the knee due to gangrene. She subsequently turned to drugs and alcohol to relieve her suffering. She died almost certainly by suicide in 1954. Her work received notoriety in the 1970's, becoming popular with feminist art historians and Latin Americ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Names:
Kahlo, Frida (preferred) [Yndia L.C. Brokaw-PGA](#) (U)
[GPOC-PHA](#)
[GPOC-PHA](#)
Frida Kahlo (U) [GPOC-PHA](#)
Kahlo de Rivera, Frida (U)
Rivera, Frida (U)
Kahlo, De Rivera (U)
Kahlo y Calderón, Magdalena Carmen Frida (U) [GPOC-PHA](#)
Kahlo, Frida (U)
Rivera, Frida Kahlo de (U)
De Rivera, Frida Kahlo (U)
Kahlo, Frida (U)
Calderón, Magdalena Carmen Frida Kahlo y (U)
Calderón, Frida Kahlo (U)
Kahlo, Frida (U)
Rivera, Mrs. Diego (U)
Kahlo y Calderón, Magdalena Carmen Frida (U)
Rivera-Kahlo, Frida (U)

Nationalities:
Mexican (preferred)
US (U)

Roles:
artist (preferred)
painter

Gender: Female

Birth and Death Places:
Birth: [Mexico City \(Mexico Federal, Mexico\)](#) (preferred) (date)
Death: [Mexico City \(Mexico Federal, Mexico\)](#) (preferred) (date)

SNAC

Search Browse Research

Kahlo, Frida, 1907-1954 [View names](#)

[Default View](#) [Research History](#) [Sources](#) [Export](#)

Biography [Resources](#) [Relationships](#) [Places](#) [Subjects](#) [Occupations](#) [Activities](#)

Frida Kahlo (born Magdalena Carmen Frida Kahlo y Calderón; 6 July 1907, Coyacán, Mexico City, Mexico – died 13 July 1954, Coyacán, Mexico City, Mexico), Mexican painter known for her many portraits, self-portraits, and works inspired by the nature and artifacts of Mexico. Inspired by the country's popular culture, she employed a naïve folk art style to explore questions of identity, postcolonialism, gender, class, and race in Mexican society. Her paintings often had strong autobiographical elements and visual metaphor with fantasy. In addition to belonging to the post-revolutionary Mexicanist movement, which sought to define a Mexican identity, Kahlo has been described as a surrealist in regional terms.



Person

Exact Dates: Birth: 1907-07-06, Death: 1954-07-13, Birth: 1916, Death: 1954

Nationality: Mexican

Languages Used: Spanish, Castilian

Related Descriptions:

- ☒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 ☒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 ☒ Virtual Call Numbers
- ☒ LCRNACO
- ☒ Wikidata

Search Elsewhere:

- ☒ ArchiveGrid Search
- ☒ DPLA Search

시소러스

Thesaurus

개념

용어 간의 관계(대등, 계층, 연관 등)를 정의하여 주제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사전이자, 의미에 대한 일정한 규칙

용어 관계 정의

대등(동위어, 유의어)
 계층(상위어, 하위어)
 관련 용어

검색 도구

확장적 탐색
 대체 검색어 제시
 자동색인 지원

정보 기능

특정 주제 분야 지식 제공

시소러스 필요성

부문

동양화, 서양화, 조각, 조소, 서, 서예, 사군자, 공예, 한국화, 양화

주제 분야

미술 양식 및 운동

문화권

기술 및 기법

소재 및 재료

시소러스 구축 방법

1

용어 수집

수집(미술, 다국어 지원 등)
지침 및 표준 필요

2

표준 용어 선정

어휘 통제 과정
관련 어휘 검토

3

분류 및 관계 정의

대등, 계층 등 관계 정의
계층 구조를 명확히 함

4

통제 도구 사용

표준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다양한 참고자료 및 연구 필요

표준을 준수하여 일관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임

- 접근점 통제
- 일관성 유지
- 중복 방지

분석 가능
콘텐츠화
기록 보존



결론 및 제언



01

협력 및 협업

국내외/다학제적
기관 협력으로
개발 및 운영 분담



02

소프트웨어 개발

다양한 포맷 정보 수집으로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 확보



03

서비스 플랫폼

분산된 출처 및 웹 자원 공유
및 콘텐츠 제공

감사합니다

Q&A

choismart@korea.kr